

중국
인도
브라질
벨기에
러시아
베트남
싱가폴
사우디
UAE

제4기 글로벌인턴 활동보고서

2013. 09. 02 ~ 11. 29

4th
Global Intern





CONTENTS

인사말	5
아산나눔재단 소개	6
글로벌인턴 프로그램 소개	8
사전교육 및 발대식 현장	10
중국	12
인도	37
브라질	43
벨기에	49
러시아	53
베트남	58
싱가폴	68
사우디아라비아	72
UAE	87
나에게 글로벌인턴이란?	95

인사말



사람은 때로 좌절합니다. 때로 실의에 빠지기도 합니다. 분노하기도 하고, 경멸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자학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태는 전혀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살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 요청되는 것은 좌절이 아니라 도전이고, 실의가 아니라 회구이며, 분노가 아니라 용기 있는 관용이고, 경멸이 아니라 모든 것에 대한 외경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스스로 귀하게 여기는 일입니다. 사람살이는 무릇 그래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의 예외가 있습니다. ‘젊음’은 좌절도, 실의도, 분노도, 경멸도, 어느 경우에는 자학의 정서조차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젊은이’로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좌절을 경험하고 있어야 하고, 실의를 꿀꺽거리고 삼키고 있어야 하며, 마땅찮은 현실에 대한 분노를 터트리고 있어야 하며, 온갖 기존의 질서나 가치나 의미를 거절하면서 결연하게 이를 지워버리는 일에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렇게 할 수 없다면 그러한 자신에 대한 스스로 부끄러운 자학의 정서를 감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젊음입니다.

그런데 젊은이가 이러한 삶을 경험한 적이 없다면, 그 젊음은 실은 젊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삶은 도전도, 회구도, 용기 있는 관용도, 모든 존재하는 것들에 대한 외경도, 자기 자신에 대해 스스로 내리는 긍정적인 평가도 틀림없이 겪어보지 않았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좌절이나 실의나 분노나 경멸이나 자학조차 그것은 어떤 경우에도 젊음의 참모습일 수 없습니다. 만약 젊은이가 진정으로 도전과 회구와 관용과 외경과 자존(自尊)의 삶을 의도했다면 그것은 필연적으로 그 젊은이가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새로운 세계를 향해 첫발을 떼고 있습니다. ‘이제까지와는 다른 삶’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바야흐로 미지의 삶에 도전하고, 이제까지 꾸지 않았던 꿈을 꾸고, 낯선 온갖 것을 넉넉하게 끌어안고, 존재하는 모든 것을 아끼고 사랑하며, 그러한 경험 속에서 이루어질 자아의 무한한 존귀함을 지니기 위한 첫발을 내딛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삶의 출발을 축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귀환이 이 처음의 순간부터 벌써 기다려집니다. 매우 조급한 기대이지만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새 세상에서 겪었을 여러분의 좌절과 실의와 분노와 경멸과 자학에 대한 증언을 듣고 싶기 때문입니다. 다시 강조해 말한다면 여러분들의 ‘젊음의 절규’, 아니면 ‘젊음의 증언’을 듣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 증언, 그 절규 속에만 우리 모두가 기다리는 ‘미래’가 있습니다. 좌절을 거친 더 큰 도전만이, 실의를 겪은 더 높은 회구만이, 분노를 삭인 긍정과 관용만이, 경멸을 부끄러워할 줄 아는 외경만이, 그리고 자학의 정서를 뚫고 나온 자존만이 내일을 환한 현실로 약속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하십시오.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은 ‘젊은이’이니깐요.

아산나눔재단 이사장 **김지철**

아산나눔재단 소개

청년은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꿈의 주체이자 미래를 창조하는 주역입니다. 아산나눔재단은 청년들의 ‘건강한 젊음’에 의해 우리 사회가 발전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산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무슨 일이든 이를 수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정신이 오늘의 청년들에게도 삶의 지표가 된다고 확신합니다. 아산나눔재단은 역경 속에서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꿈과 열정, 도전과 창조, 나눔과 책임정신을 가지고 이루어 낸 아산의 정신을 오늘의 청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비전 VISION

아산나눔재단은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들이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열린 사회를 지향합니다.

미션 MISSION

아산나눔재단은
젊은이들과 어려운 이웃들이 자신의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와 배움의 장을 열어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 핵심가치

꿈과 열정: ‘나’를 발견하고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열정
도전과 창조: 창조적 변화를 이끄는 도전 정신
나눔과 책임: 더불어 사는 책임주체로서의 성숙한 자의식

■ 사업 선택 원칙

역량개발: 일회성, 시혜성 사업이 아닌 지속적인 역량개발을 지원하는 사업
사회적 파급효과: 선택과 집중을 통해 사회적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
자생력 복원: 개인과 가족 및 지역사회의 자생력을 복원하는데 도움이 되는 사업

■ 사업 진행의 방식

책임성: 새로운 시도에 과감하지만 책임 있는 투자
질적 성과: 양적 사업성과를 넘어 질적인 사업성과를 추구
투명성: 정보공개를 통한 투명한 사업진행

청년창업 활성화

아산나눔재단은

창업에 꿈을 지닌 청년들이 도전 정신을 발휘하여

누구나 청년 정주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창업지원공간
MARU180



정주영
창업경진대회



글로벌리더 양성

아산나눔재단은

세상에 대한 보다 넓은 시각을 가지고 나눔의 정신을
실천해 나가는 청년들이 세계적인 인재로 비상하도록
날개를 달아주는 다양한 사업을 전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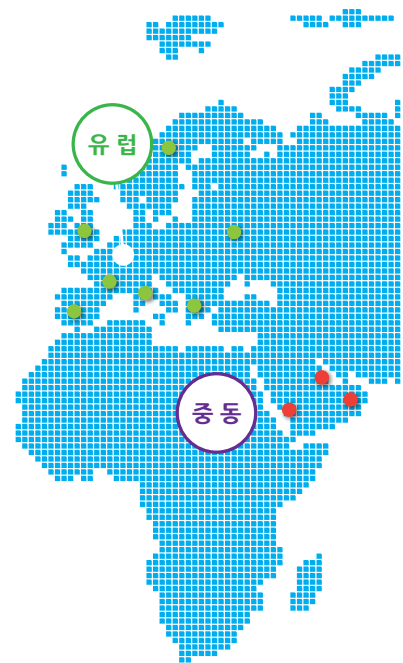
글로벌인턴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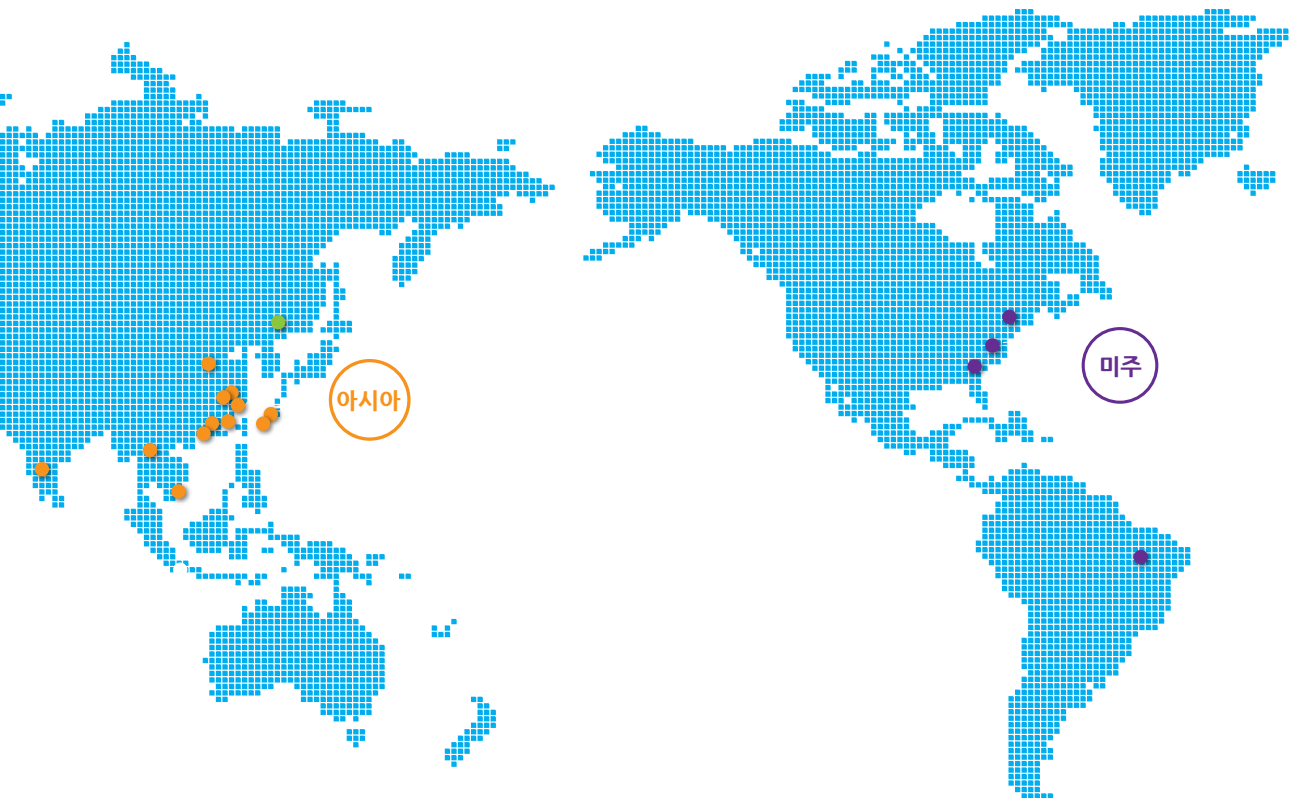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글로벌인턴 프로그램 소개



아산나눔재단 글로벌인턴 프로그램은 글로벌리더 양성 및 도전 정신 고취를 위해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글로벌기업의 사업장에 인턴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글로벌인턴 프로그램은 학력, 연령, 성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선발하며 청년들은 해외에 나가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동시에 해외 현장에서 실무를 쌓을 수 있습니다.



1기



11개국

20개 사업장

175명

2기



18개국

39개 사업장

222명

3기



8개국

20개 사업장

58명

4기



9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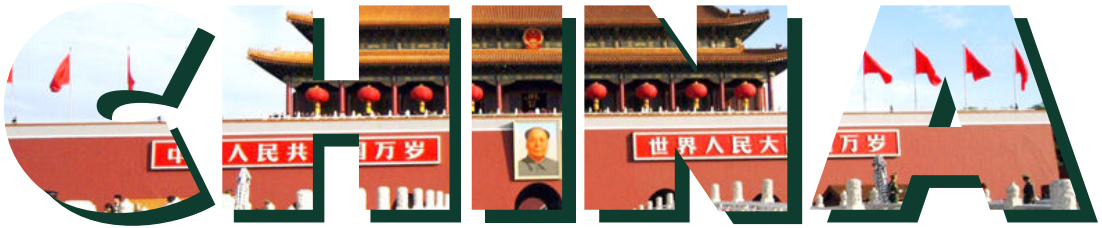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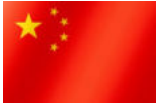
17개 사업장

44명

제4기 글로벌인턴 사전교육 및 발대식







Hyundai Heavy Industries China Beij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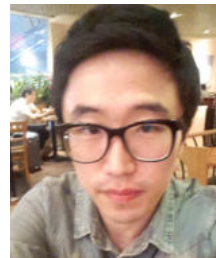
정민우

인천인데 외모만 보면 대리? HSK 시험 경험이 전무 하지만 최고의 중국어와 무림 실력을 자랑하는 교수! 비밀리에 중국인 아내와 아이들을 둔 것이 아닌지 심히 의심이 감. 만형으로서 북경 청년들의 정신적 지주 담당. 언제나 동생들 먼저 생각하시는 따뜻한 청년 이시다.



윤진영

다양한 전자기기들은 섭렵한 독기 뽀은 얼리어답터. 현지인보다 더 현지인 같은 모습에 중국 여권을 가진 것이 아닌가 심히 의심된다. 한국어가 서투려 현지에서 한국어 과외를 받기도 했다는 사실. 책 읽는 진영씨 라는 블로그를 운영 중이지만 그 누구도 책 읽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



정종문

북경의 모기들에게도 사랑 받는 때서 니스타. 앞면 알수록 매력이 넘치고 182cm 라는 웅장한 키의 소유자. 항상 자상한 미소와 온유한 성품, 경청하는 자세로 형님들 보필 담당. '그러니까요', '그러네요'라는 말을 자주 하며 뒤에서 남모르게 사람들을 잘 챙기는데 뭐가 그런지 본인만 안다는 함정.



이수일

그가 없는 북경법인, 웃은 일이 있을까? 북경 청년 중 유일한 지방 사나이. 성대모사, 작명개그, 몸 개그 다 되는데 아이러니 하게 서운함은 도저히 흉내를 못 낸다. "Just 10mins" 10분이면 국적, 나이 성별을 구분하고 친해질 수 있는 스펀지 같은 남자. 북경에서 '제기차기' 붐을 일으킨 장본인이다.



한인우

북경의 아침은 내가 책임진다. 규칙적인 생활과 긍정으로 무장한 북경의 전도사. 1달 반 동안 손에 감은 갑스는 이제 그의 트레이드 마크. 본인은 씻는다고 우기는데 씻는 모습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 남자처럼 한결 같은 사람이 많으면 세상이 참 맑아질 것 같다.

about

Hyundai Heavy Industries China Beijing



단기 달리기는 저리 가라! 마라톤 선수처럼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경영으로 승부한다!

중국 북경 서남쪽에 위치한 현대중공업 북경법인은 2002년 9월 1일 현지 생산법인으로 출발해 연간 1,000대의 지게차와 8,000대의 중형 굴삭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법인에는 부장급 주재원 십 여명 아래 중국 현지 직원 550 여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중국의 고속성장에 힘입어 건설장비사업이 호황을 누리고 그 덕에 북경법인도 사업이 잘 되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 건설장비 회사들이 몰려들어 지금은 시장이 포화상태고 과다한 경쟁 시대지만 여전히 북경법인은 철저한 리스크 관리와 법인장 이하 부장님들의 알뜰한 경영으로 현지 기업을 보다 확실히 우위를 차지하며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중국인들과 더불어 사는 북경법인.

북경법인은 수익창출에만 머물지 않고 중국인들과 더불어 사는데도 소홀함이 없습니다. 평균 기본급 60만원 월급에 풍성한 구내식을 제공하고 상징적인 요금(월 2만원)만 받고 기숙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2008년 5월 사천성(四川省) 대지진 당시에는 23억 상당의 19대 중장비를 가장 먼저 현장에 지원했다고 합니다. 현지인들이 현대중공업 북경법인에 입사하는 것은 한국에서 대기업 취직 만큼이나 힘든 것 같습니다.



■ 윤진영

윤진영, 한글탈태 換骨奪胎 하다.

이미 HSK6급을 획득한 상태였기에 중국어에 대한 약간의 자신감을 가지고 중국에 왔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아직도 배워야 할 부분이 정말 많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특히, 업무상에 발생하는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이해한 내용을 다른 이에게 분명하게 설명하는 부분에서 특히 어려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또한 남방과는 다른 북방의 발음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은 오히려 저를 더욱 채찍질하게 되었고 약 3달간의 중국 생활을 통해 제 중국어의 새로운 껍질을 벗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배부른 경험은 고민한 자에게만 찾아온다.

문득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산나눔재단’에서 우리에게 이 기회를 준 이유가 무엇일까? 내가 이 기회를 통해 배워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돌이켜보니 3개월이라는 짧지도 길지도 않은 기간동안 많은 것을 보고 배울 수 있었고 앞으로 중국과의 무역 관련 일을 하고 싶는데 그 목표로 가는 첫 단추를 끼울 수 있었습니다.

■ 이수일

중국은 아직도 뿌얼다.

2011년 봄이 시작되는 2월, 교환학생으로 서안에 도착하니 황사도 아닌, 그렇다고 안개도 아닌 정말 말로만 듣던 뿌연 스모그가 답답하게 중국의 공기를 메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 글로벌인턴으로서 북경에 도착하니 2년 전과 같은 똑같은 모습의 뿌연 중국이 저를 반겼습니다. 세계에서 4번째로 큰 영토에 13억이 넘는 인구가 거주하고 있고, 다른 국가보다도 더 빠르게 성장 중인 중국의 수도 베이징은 제가 가 본 그 어떤 도시보다도 크고 웅장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성장 이면에 도사리는 뿌연 스모그같은 안 좋은 점을 극복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언젠가는 맑아질 뿌연 스모그 속의 중국.

이러한 급격한 사회 변화가 진행중인 중국이지만 사람들은 언제나 여유가 있습니다. 분명히 한국 사람보다 적은 월급을 받는 중국 사람들이지만 자신들의 취미 생활에 투자를 하며, 기회가 주어지면 여행도 다닙니다. 중국을 이끄는 상위 5%의 사람들은 우수한 두뇌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인재들은 투철한 애국심과 사명을 가지고 중국의 발전을 위해 매일매일 노력하고 있고 이는 중국의 고속성장으로 이어졌습니다. 중국의 무서운 발전은 우리나라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북경법인 또한 중국 중장비 업체의 비약적인 발전 때문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 정민우

현대의 창조정신을 배우다.

글로벌 기업으로서 지금의 현대중공업이 존재할 수 있었던 힘은 창업주 정주영 회장의 창조 정신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현대만의 독자적 발전이 아니라 가난한 한국을 현대적인 사회로 만들기 위해, 전체 한국 경제의 발전을 위해 조금 비싸더라도 한국의 중소기업들의 부품을 사용하고 투명한 입찰을 통해 납품업체를 선정해 건전한 시장을 만들기 위한 노력. 그 노력으로 현대중공업은 지금의 자리에 설 수 있었고 이제는 글로벌 기업으로서 해외로 뻗어나가 그 입지를 탄탄히 다지고 있습니다. 저는 북경 법인의 현장에서 누구보다 먼저 가능성을 포착하고 투자를 결정하는 결단력과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현대의 창조 정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G2라는 대국의 그늘에 가려진 중국의 단면.

이번 기회에 중국의 양면성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1년 중 절반을 스모그로 신음하고 질서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교통체계, 뻔뻔하게 TV에서 흘러나오는 유해식품 광고 등에 시달리는 중국의 어두운 단면을 관찰하였습니다. 게다가 정치적인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창조적인 기업들이 자유롭게 날개를 펼 수 없는 환경까지. 선진국이 되기까지 중국이 가야 할 길은 아직 멀게만 보였습니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이번 경험 덕에 저의 좁았던 시야가 트여 글로벌 브랜드 현대의 일원으로 중국과 중국인들을 바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정종문

글로벌인턴은 경험, 사람, 도전을 얻은 일석삼조의 기회.

경험- 한 사회의 일원으로서 현지인들과 함께 일을 하고 문화를 이해하는 과정은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중국어 공부라는 유일한 목적으로 중국에 교환학생으로 와서 보낸 1년의 시간보다 이번 3개월 인턴의 경험을 통해 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사람- 인생선배, 멘토이자 동시에 아버지 같은 법인장님, 부장님과의 대화를 통해 중공업의 역사, 기업의 순환구조, 한국 및 중국의 경제, 각 부서의 역할 등 중요한 사실에 대해 배울 수 있었고 어떻게 인턴을 해야 하는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한 마디 한 마디 주옥 같은 그들만의 노하우를 전수받을 수 있었습니다.

도전- 대부분의 직원들이 중국인들 뿐이어서 문화적인 차이와 의사소통의 한계라는 크나큰 벽에 마주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성적인 제 성격을 바꿔보기로 결심하고 같은 부서 직원들부터 다른 부서 직원들까지 직접 의사소통을 하며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친분을 쌓으려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친분을 쌓은 직원들도 많아지고 점점 적극적으로 변해가는 저의 성격을 볼 수 있었습니다.

■ 한인우

내일 지구의 종말이 와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 자.

내일 지구의 종말이 와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다는데, 과연 나에게 이렇게 진정으로 가슴 뛰고 설레게 하는 일은 무엇일까? 과연 나는 무슨 일을 해야 하며 어디서 삶의 가치를 찾아야 하는지에 대한 물음은 항상 저를 따라다니던 고민이었습니다. 외국에서 일을 해보겠다는 것은 중학교 시절부터 품어오던 사과나무에 대한 대략적인 윤곽이었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무역을 하면서 한 손에는 빵을 다른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살아가고자 했으며 그래서 부족하고 미약하겠지만 타인들에게 도움이 되고, 필요한 곳에 보탬이 되고 싶다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는 단순히 짧은 3개월이 아니라 어떤 사과나무를 심을 수 있을지 구체적인 윤곽을 그릴 수 있는 귀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사과나무를 심기보다 사과 먹기에 바빴던 나.

타지에서의 생활, 중국의 문화, 군대 이후에 첫 사회생활, 직장이라는 틀에 짜인 삶 속에 저를 끼워 맞추려 노력함으로써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어려움들을 마주쳐야 했습니다.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온 마음을 다 쏟기에 저는 아직도 저의 일과 상황을 우선시 하는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사랑에는 정말 많은 노력과 책임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 집과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중국, 그것도 발달된 수도에 짧은 시간을 있는데도 벌써 집이 그리웠고 이 사회의 어떤 면들은 답답하게 느껴졌으며 제게 익숙한 것들과 안위를 찾는 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문화탐방-

서안



중국역사와 미래를 이어주는 중심지, 서안.

상해, 칭다오 그리고 백두산이라는 쟁쟁한 후보를 뒤로하고 저희가 서안을 여행 장소로 꼽은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서안을 중심으로 중국의 문화가 꽃피었다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으며, 현재 중국의 지도자인 시진핑(習近平)의 고향이기도 하며 게다가 얼마 전 박근혜 대통령의 방문을 비롯해 삼성 반도체 업체 입주 소식들까지 들리면서 한중 교류의 새로운 한 축을 담당하게 될 서안이야말로 말로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구심점이 될 도시이고, 저희가 반드시 경험해 봐야 할 도시라고 생각했습니다.

서안의 대표적 유적지 서안성벽과 병마용을 둘러보다.

침대 칸 기차를 타고 15시간을 달려 드디어 서안에 도착했습니다. 막 도착한 서안의 느낌은 북경과는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서안이 소위 성안, 성밖으로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이 될 만큼 서안성벽의 존재감은 대단했는데 현대화된 도시 중심에서 자신의 건재함을 뽐내고 있는 성벽을 보면서 중국인들의 역사를 향한 애정과 그들의 역사 의식이 느껴졌습니다. 성벽에 올라가 자전거를 타며 서안의 전경을 즐기기도 하였습니다. 둘째날에는 천하를 통일하고 황궁과 같은 규모의 지하 궁전을 70만명을 동원해 만들었다는 세계 미스터리 중 하나인 병마용으로 갔습니다. 사진으로 볼 때와는 다르게 실제로 그것을 마주하고 있자니 이전 시대의 살았던 사람들의 고된 삶과 왕권의 힘 그리고 계급사회와 같은 단어들 이 떠오르며 지금의 상황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북경청년들 5명이 함께했기에 더 뜻깊었던 서안 여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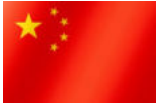
이들이라는 짧은 시간 제약과 휴대폰 도난이라는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있었지만 서안이라는 도시를 직접 체험하고, 처음으로 5명 모두가 함께한 여행이었기에 더 기억에 남는 추억이 되었습니다.



4th Global Intern
China

PHOTO ESSAY





Hyundai Financing Lease China Shanghai



배정화

그녀는 고된 인턴 생활로 다크써클이
나날이 짙어지는 중. 민감한 장
때문에 화장실을 자주 가지만. 다이어트
효과는 아직인 듯 한 그녀. 지인들과의
연락을 위해 전화카드에 많은 돈을 투자
한다.



이일유

첫눈에 일본사람인 줄 알았으나 김치
라면을 사재기하는 서툰사람. 중국에서
고등학교를 나와 중국 군것질 음식에
빠삭한 중국통通. 브아걸 가인을 닮은
아이라인과 패션으로 인턴 중 제일
멋부리는 말언니.

about

Hyundai Financing Lease China Shanghai



현대금융리스의 또 다른 이름, 현대용자조임유한공사!

현대금융리스의 중국 내 법인명은 '현대용자조임유한공사'로 사무실은 중국 상해 푸둥 루지아주이의 China Merchants Tower 33층에 있습니다. 세계 500대 기업이자 한국에서 가장 큰 중공업 회사인 현대중공업과 한국의 금융리스 산업을 이끌고 있는 효성 캐피탈의 합작 투자로 2007년 4월 설립되었으며 창립 이래 지난 7년 동안 꾸준하고 빠르게 성장해왔습니다. 현재 의료 장비, 운송 장비, 인프라 건설, 기계 산업, 교육 시스템, 전자, 환경보호와 에너지 보존 등과 같은 다양한 사업 영역에서 리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수많은 고객들과의 경험과 우수한 인적 자원, 고품질 서비스와 파트너십을 토대로 금융 서비스 분야를 이끄는 기업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대금융리스의 가장 큰 역할은 현대중공업이 중국에서 생산하는 건설장비 이용 고객에게 경쟁력 있고 이용이 편리한 리스 상품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현대 건설 장비의 판매신장에 기여하고 생산법인의 자금운영을 지원하여 생산 법인이 안정적으로 성장 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합니다. 또한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이 필요한 다양한 리스상품을 개발하여 판매 향상에 기여할 뿐 아니라 만족스러운 자금 지원 서비스도 제공하여 성공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자 합니다.

랜드마크 속의 현대금융리스.

저희 사무실이 있는 China Merchants Tower 34층에는 상해지주회사 재무부 사무실이 있습니다. 회사 근처는 빌딩지대로, 바로 왼쪽에 위치한 상해 증권거래소 건물에는 현대오일뱅크와 하이투자증권 사무실이 들어서있고 주변에 동방명주, 금무대하, 상해국제 금융센터(SWFC) 등 랜드마크 건물이 많습니다.

■ 배정화

아쉬움, 열정적인 앞날을 위한 밑거름.

“꼭 다른 세상에 들어온 것 같다.” 9월 2일 처음 근무지에 도착하고 그 날 저녁에 쓴 제 일기 내용입니다. 사실 지금도 다른 세상에 있는 것 같습니다. 느낌, 배움, 아쉬움. 이 세 글자를 중국어로 표현한다면 “感”, “學”, “憾”인데, 저에게는 느낀 점, 배운 점보다 아쉬웠던 점이 더 많아서 그런지 세 번째 “憾” 글자가 제일 크게 보입니다. 실수를 하는 제 자신이 너무 싫은 날도 있었고 하고 싶은 말을 못해 집에 가서 아쉬워한 날도 많았지만 이런 아쉬움들이 앞으로의 생활에 열정을 불어 넣어줄 것이라 확신합니다.

중국에서의 특별한 경험.

한국으로 돌아가서 취업 준비를 할 생각에 걱정이긴 하지만 여기서 인턴을 하며 느낀 점, 배운 점들을 저만의 다양한 이야기로 잘 정리하면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중국으로 어학연수를 가기는 참 쉽지만 중국 회사에서 일해보는 것은 누구나 꿈꿀 수 있는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게 저를 뽑아주신 아산나눔재단에 감사드립니다. 한국으로 돌아가면 졸업을 하게 되는데, 졸업할 때가 되면 다들 그런 생각은 한번씩 할 것입니다. ‘과연 내 대학생활은 멋있었나?’ 대학생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것들을 경험할 수 있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이번 아산나눔재단 글로벌인턴으로 제 대학생활은 충분히 멋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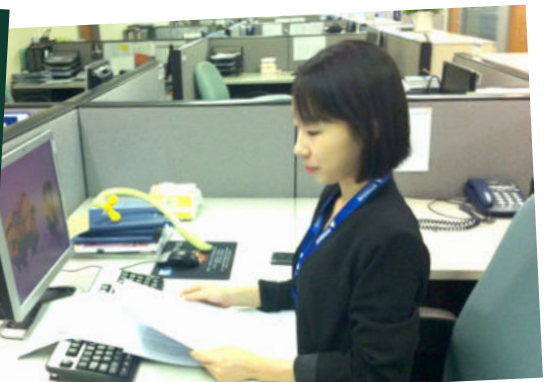
■ 이일유

중국의 심장, 그 중심에 서다.

베이징이 중국의 머리라면 상하이는 중국의 심장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회사는 심장의 한 가운데, 금융중심지 Lujiazui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하면 더 와 닿을 수 있을까요. 한국의 신한은행 상하이 지점, 미래에셋 건물이 근처에 있다고 하면 금융중심지라는 것이 확 와 닿을 수 있을까요. 또한 상하이의 랜드마크 건물, 월드파이낸스센터가 바로 길 건너에 있습니다. 상하이 스카이라인의 으름 건물을 눈 앞에서 매일 보니 지겹기도 하겠지만 지겹기는 커녕 아직도 볼 때 마다 가슴이 설레고 고개가 절로 뒤로 젖혀집니다. 그래서 늦게 퇴근하는 날에는 중국인 직장인들 사이에서 어김없이 야경을 찍는 관광객으로 변신했었습니다.

전공공부의 연장선.

이번 글로벌인턴을 통해 조직 문화와 업무 지식, 기술은 물론 중국 시장을 보는 눈도 키운 것 같아 개인적으로 아주 뿌듯한 시간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중국 시장 환경에 대해 가슴 깊이 새기기도 했지만, 학교에서 배운 경제학적 지식을 충분히 꺼내어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의 4년보다 상하이에서의 3개월 동안 경제에 대해 많이 생각하고 고민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취업 전선으로 뛰어들었지만 이 곳에서의 업무 경험과 지식이 저의 경력개발에 지속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야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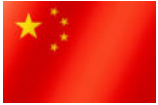




4th Global Intern
China

PHOTO ESSAY





CHINA

Hyundai Oilbank China Shanghai



구성희

매일 아침은 음악과 함께 여는 그녀는
남만을 아는 사람. 어떠한 힘든 일도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리는 그녀는
털털함의 최강자. 멋진 인턴 구성희!



이부희

힘든어도 하하 웃으며 넘겨버리는
무한 긍정의 그녀! 가늠고 여려 보이는
모습이지만 일 할 때만큼은 성실하게
하는 노력파.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뜬다는 마음으로 오늘에 최선을 다하는
이부희!

about

Hyundai Oilbank China Shanghai



세계 최대의 오일 수요처 '상해 오일뱅크'.

'대봉만리'란 미래를 위한 목표가 확실하게 정해져 있으면 봉새가 하루에 9만리를 간다는 뜻입니다. 현대오일뱅크는 중국시장 개척이라는 확고한 목표아래 2012년 10월 12일 대봉만리를 꿈꾸는 <現代能源貿易上海有限公司(현대에너지무역유한공사)>라는 이름으로 출발하였습니다. 중국은 석유제품 및 석유화학제품의 최대 생산국인 동시에 최대 수입국이기도 합니다. 상해는 중국 내 최대 석유 수요처로, 법인 자체 명의의 제품 직거래를 개시하는 등 무한 잠재력을 가진 중국 석유 시장에 그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러나 현재 중국은 석유제품(휘발유, 등유, 경유 등)의 거래가 보호 산업으로 지정되어 있어 외국 기업의 거래가 제한적임에 따라 상대적으로 거래가 용이한 석유화학제품(프로필렌, 프로자일렌, 유황 등)을 위주로 중국 시장에 진출하였습니다.

9만리를 나는 봉새가 될 상해법인.

세계 최대의 오일 수요처인 상해법인은 황해를 통한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있으며, 신규 제품 pre-마케팅, 거래처 개발 등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상해법인은 장기 비전 사업으로 Hyundai Shell Base Oil 社(현대오일뱅크와 Shell사의 합작 회사)에서 만들어진 윤활기유 및 윤활유 제품의 신규 고객을 확보하고 있으며 합성섬유의 주 원료인 BTX 거래를 개시하는 등 현대오일뱅크 상해법인의 발전을 위해 3명의 주재원을 포함한 총 9명의 직원 모두가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룬 큰 발전과 성과만큼 석유 시장의 봉새가 되어 9만리 그 이상을 날아갈 상해 법인의 모습에 벌써부터 마음이 두근거립니다.



■ 구성희

완성을 위한 작은 퍼즐 하나하나.

중국에서 인턴생활을 하면서 나라마다 회사 환경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중국은 비교적 나이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회구성원이 광범위하다 보니 다양한 구성원 통합정책을 구상해야 하고 그렇기에 포용력의 차이가 다를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첫 임무였던 3개월 목표 보고서작성이 기억에 남습니다. 부장님께서 “기본에 충실해, 임마”라고 말씀하셨을 때 왜 모든 일을 의의 있게 해야 하는 지 깨달았습니다. 직장인의 하루는 간소하면서도 그 속은 퍼즐 같이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퍼즐은 아주 작은 한 조각 까지도 맞춰야 완성이 되듯, 나의 업무가 큰 업무가 아니더라도 퍼즐을 맞추기 위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보통처럼 살아가는, 배우의 연속.

저는 여유로울 때 책 한 권을 다시 곱씹었습니다. 홍인혜의 “지금이 아니면 안될 것 같아서”는 나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턴들에게 공감이 되면서도 위로가 되는 책입니다. “주어진 시간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솔직히 말하면, 타지의 생활에서 보통의 사람처럼 살아가기란 정말 쉽지 않은것 같습니다. 낯선 이방인으로서 현지인과 부대끼는 생활은 그 자체가 나에게 배움터였고, 앞으로도 꼭 배우의 연속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 이부희

고민 끝, 배우며 발전하는 나를 발견하다.

인턴 파견 전, ‘업무를 잘 해내지 못하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파견되었을 때는 짐이 되는 것 같아 부담스러웠지만 고민은 곧 사라졌습니다. 제 조급함 때문에 더 넓은 것을 보지 못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직원 분들이 치열하게 일하는 모습을 접하며 배우고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여기서 제가 할 수 있는 한 많은 것을 얻어가려 노력하고, 법인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행동했습니다. 최대한의 방법을 동원해 업무를 완수했고, 지적받았던 부분을 보완하며 발전하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삶의 깨달음을 얻다.

업무수행과정에서 직원 분께서 제게 꼼꼼하고 상황정리를 잘해, 기획 업무가 잘 어울릴 것 같다고 말하셨습니다. 이는 저에 대한 새로운 발견이었습니다. 게다가 3개월 간의 출근은 제게 회사가 중심이 되는 삶을 사셨을 부모님에 대해 생각하게 하였습니다. 또 한국의 발전은 고생하시는 직장인들이 있기에 가능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공부의 의미와 효를 다하고 국가의 발전에 이바지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새롭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아쉬움을 넘어 발전으로.

인턴생활이 시작 되었을 때부터 가장 아쉬웠던 점은 부족한 중국어 실력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이 점이 ‘한국으로 돌아가면 마음 잡고 중국어 공부를 하리라’라는 다짐을 심어주었습니다. 언제나 발전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한국에 돌아가서 중국어 공부를 마무리 지을 것입니다.

-문화탐방-

소주, 항주



“上有天堂，下有蘇杭. (하늘에는 천당 있고, 땅에는 소주와 항주 있다)”

〈상해-소주-항주〉코스는 여행객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중국 관광지 중에 하나이면서도, 특히 항주는 중국 지폐 위안화의 1위안 지폐 그림의 배경이 되는 유명 관광지입니다. 상해에서 약 1시간가량 기차를 타고 항주역에 도착했고, 항주의 유명한 호수인 ‘서호’로 향하였습니다. 신기하게도 일주일 내내 스모그, 먹구름으로 인상을 찌푸리게 했던 상해에서의 날씨가 항주에 도착하고 나니 구름 한 점 없이 맑고 화창하여 저를 더 설레게 했습니다.



중국의 4대미녀 ‘서시’.

한국에는 3대미녀라고 불리는 ‘김태희, 송혜교, 전지현’이 있는 것처럼 중국에도 아주 오래 전 춘추전국시대 때부터 4대미녀라고 불리는 ‘서시, 양귀비, 초선, 왕소군’이 있다고 합니다. 이 곳 ‘서호’는 4대미녀 중 한 명인 ‘서시’의 고향이자 중국 4대 호수 중 가장 빼어난 경치가 ‘서시’의 미모와 같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과연 얼마나 아름답길래 호수의 이름으로 지어졌을까 싶기도 하고 전지현, 송혜교, 김태희와 비교가 되는지 검색해서 찾아보기도 했는데 개인적인 제 생각으로는 한국의 3대 미녀가 조금 더 출중하지 않나 싶습니다.

“항주도 식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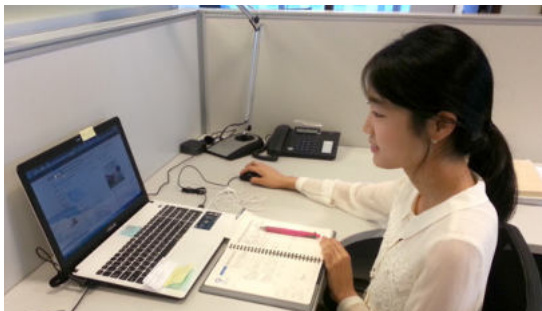
인터넷에 ‘항주 맛집’이라고 검색하면 제일 많이 나왔던 “外婆家(외할머니댁).” 뭔가 이름만 들어도 맛있고 정이 가는 곳이었습니다. 예전에 중국의 음식문화와 관련한 수업에서 그릇이 이 나간것이 그 음식점의 역사를 보여준다고 생각해서 그대로 쓴다는 얘기를 얼핏 들은 적이 있습니다. 비록 접시는 금이 가고 낡았지만 음식만큼은 동서양의 맛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한 점도 남김없이 비워진 접시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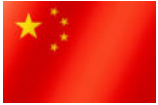




4th Global Intern
China

PHOTO ESSAY





Hyundai Heavy Industries China Shanghai



박노근

평소에 얘기를 자주 하지 않지만
부담 없이 편하게 지낼 수 있는 형.
중국 온 지 한 달밖에 안됐는데
중국어 실력이 눈에 띄게 늘어난
당신은 욕심쟁이 우후훗! 짜요우!!!



왕기용

노래하는 기용이. 그가 곁에 있으면
MP3가 필요가 없다! 24시간 발라드
노래 풍 가동! 발라드 가수 만큼이나
진지하고 우수에 찬 눈빛을 가진 자!

about

Hyundai Heavy Industries China Shanghai



중국에서의 막대한 영향력, 현대중공업 상해지주회사.

현대중공업 상해지주회사는 한국의 현대중공업에서 중국에 설립한 10개 법인의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 지원할 수 있도록 2006년 5월 중국 상무부의 비준을 받아서 설립된 회사입니다. 이곳에서는 주로 크게 3가지 업무를 수행하는데 첫째, 현대중공업의 중국 내 10개 법인에 지분을 보유함으로써 경영에 참여하는데, 재무관리, 현지금융, 홍보, 법무, 인사, 노무 및 전산관리 등의 업무를 하면서 모든 법인의 운영효율을 높입니다. 둘째, 현지 법인의 지리적인 이점을 이용, 신속한 정보 입수와 현지 생산업체와의 긴밀한 협조 거래를 통하여 안정적으로 원자재를 구매하고 적정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셋째, 각 분야에서 급속도로 성장하는 중국에서 신규사업 개발을 하고 있으며, 중국에서 7년 넘게 회사를 운영하며 얻은 정보와 기술력으로 중국에 진출하려는 한국 기업과의 협력과 거래를 통해 돕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국 산업 시장에서 영향력을 넓히고 있습니다.

사업영역 확대로 중국 시장 내 경쟁력 확보!

최근 지주회사가 맡은 중책은 총징에서 한국 반도체기업 공장 건설에 장비 조달, 각 법인 IT 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통한 안정적인 IT 시스템 구축, 한국본사 구매자재의 아웃소싱 선정 등 각 부문에서 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중국에서의 사업영역을 점차 늘려가고 있습니다. “창조적 예지”, “적극 의지”, “강인한 추진력”이라는 가치관을 가진 현대중공업아래 상해지주회사의 영향력은 14억 인구 중국의 땅에서 불철주야로 열심히 일하고 있는 현대인들과 함께 점점 커지고 있고 앞으로의 미래가 더 기대되는 회사입니다.

■ 박노근

중국의 경제도시 상해.

중국에서 경제중심지 상해는 인턴생활을 하는 저에게 매우 매력적인 도시였습니다. 이곳에는 이미 많은 기업들이 진출하였지만 얼마 전 상해자유무역지구 개방으로 더욱 뜨겁게 급부상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중국의 막대하게 큰 시장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고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분야의 박람회 관람을 통하여 그 분야 기업들의 신기술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중국 기업들의 강세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다른 일류기업들과 크게 뒤쳐지지 않는 기술력을 가지고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있는 점이 인상이 깊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제가 상해에서 일하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전시회 관람 한번으로 중국진출 기업들을 한 번에 볼 수 있어 정말 좋은 경험이 되었습니다.

3개월을 되돌아보는 나의 느낌.

인턴 프로그램을 처음 겪어보는 저에게 이번 회사 생활은 내년에 취업을 해야하는 취업준비생으로서 직무를 이해하고 회사생활의 단면을 볼 수 있었던 좋은 경험이었다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첫 직장을 선택해야하는 상황 속에서 회사나 직무 선택에 있어 좀 더 저에게 맞는 명확한 기준을 세울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경제 강국 G2인 중국에서 근무하면서 중국기업과 중국에 진출한 세계 각 기업 박람회를 통해 해외견문을 넓히고 글로벌 마인드를 키울 수 있었으며 그 속에서 아직 많이 부족한 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인턴이 끝나면 자기계발에 힘쓰고 끝없이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 왕기용

업무만큼이나 뜻깊었던 출장과 박람회.

상해지주회사는 교통의 편리함을 위해 몇 년 전 푸둥에서 훙차오 공항과 기차역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제가 배정된 전기전자 시스템 해외영업부에서 전기전자 관련 자료 번역과 주간보고서가 주업무를 이루었습니다. 인턴으로 근무 중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은 세 번의 출장과 박람회를 참가한 것입니다. 출근 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상해에서 2시간 정도 떨어진 양중 공장을 방문하였습니다. 공장을 둘러 보고 어떤 전기전자 제품을 생산하는지 명확히 알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두 번째 출장지는 사천성에 있는 청두였습니다. 출장 목적은 현대 중공업 대표로 청두에 있는 초등학교 학생들과 한중교류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이든 중국이든 이와 같은 경험이 없었지만, 어린이들과 의미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2013 상해 국제전력박람회 역시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박람회 전 회사 카탈로그와 제품모형을 옮기는 일부터 박람회 기간 중 관람객에서 현대중공업을 소개하는 일까지, 현대중공업이라는 한국의 기업을 중국인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3개월 동안 인턴 근무를 하면서 업무 시간뿐만 아니라 업무 시간 외적으로도 결코 헛된 경험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대중공업이라는 큰 회사에 다니면서 기업 문화를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었고, 또한 상해라는 중국의 대도시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것을 배웠습니다.



-문화탐방-

난징



난징-대학살기념관, 평화를 위한 기념관.

난징 대학살은 중일전쟁 때 당시 중국의 수도 난징에서 일본군이 자행한 학살사건인데, 일본군의 무자비한 학살로 40일 동안 약 30만 명이 살해당했다고 합니다. 난징대학살 기념관 입구부터 희생된 중국인들의 조각상을 볼 수 있고, 기념관 내부는 사진과 희생자 명단, 그리고 유골이 전시되어 있고 영상도 관람할 수 있었습니다. 희생자들이 겪은 고통과 슬픔 그리고 끔찍했던 그 순간을 이 세상에서 다시 오지 않도록 모두가 평화를 위해 힘써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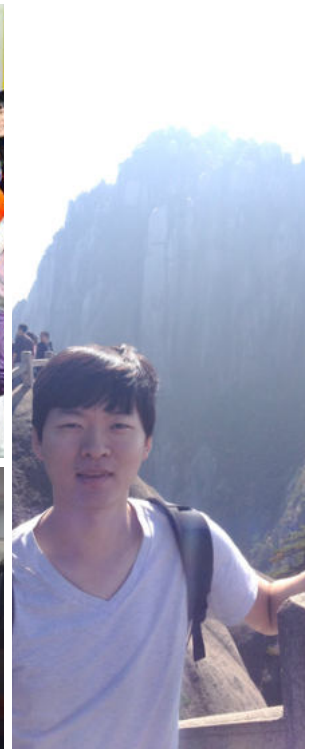
난징-중산릉, 쑨원의 무덤에 가다.

'난징을 찾아 중산릉을 들리지 않으면, 중국인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중산릉은 중국인들이 한 번쯤은 찾아 참배하는 곳입니다. 이곳 중산릉은 중국 혁명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중산 쑨원의 무덤입니다. 1926년 당시 중국 국민당 총통이던 장계석이 쑨원을 기리기 위해 만든 곳으로 계단이 무려 392개고, 5미터 높이의 돌 입상이 무덤을 지키고 있는 엄청난 규모의 무덤인 셈입니다. 또한, '릉'은 황제의 무덤에만 붙일 수 있는 칭호인데, 쑨원의 무덤에는 '릉'이 붙어있으니, 중국인들이 얼마나 그를 사랑하고 존경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난징시는 쑨원이 가장 사랑했던 도시 중 하나이고, 그가 참여했던 민국 정부가 있는 곳이기도 하기 때문에 도시 전체가 쑨원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합니다.

우시-영산대불, 규모에 놀라고 화려함에 또 놀라다.

중국에서 가장 큰 입불(立佛)인 영산대불의 불상 높이는 88미터, 하부 연화좌 까지 합치면 100미터가 넘습니다. 보통 부처님을 모시는 곳을 절이라고 하는데 이곳은 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범궁은 일반 사찰과 달리 정말로 궁전처럼 화려했고 거대했습니다. 궁전 내부에서는 계율, 8지옥, 십이지상 등 불교를 상징하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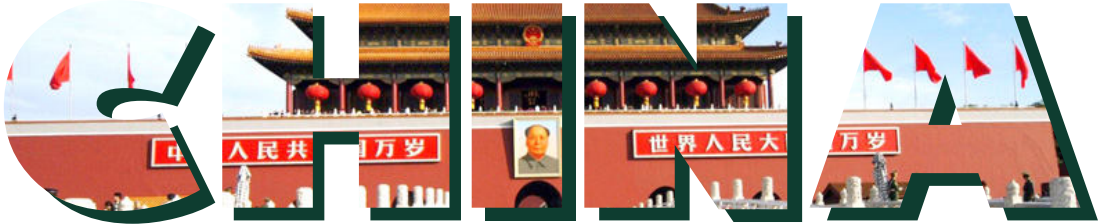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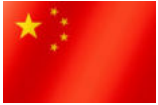




4th Global Intern
China

PHOTO ESSAY





Hyundai Heavy Industries China Yantai



김선영

호기심 왕! 궁금한 건 절대 지나갈 수 없다! 친화력 왕! 모든 중국인은 내 친구! 낯가림이 뭐가요? 밝은 성격으로 낯선 사람들과의 벽도 해님 같은 미소로 허물어버리는 김인턴!



김윤아

넘아 이렇게 유쾌해도 되는거야? 특이한 웃음소리와 동안미모의 소유자답게 늘 명랑하고, 중국직원들에게 비타500같은 그녀. 중국에서 신이 내린 음식을 발견한 먹방의 일인자.

about

Hyundai Heavy Industries China Yantai



대륙의 동쪽에서 세계로 뻗어나가는 연대법인.

중국 산둥성의 항구개발 중심도시 '옌타이'에 위치해있는 중국 연대법인은 현대중공업 55%, 중국 연대 빙륜 그룹 45%의 투자로 설립된 합작회사로 중국에서는 現代氷輪重工有限公司(현대빙륜중공업유한공사) 라고 칭합니다. 한국 주재원 분들과 연대빙륜그룹의 중국 책임자분들 그리고 570명의 중국 현지인이 근무하고 있는 연대법인은 현대중공업 중국법인들 중 유일한 플랜트 사업부문의 법인입니다. 2004년 3월 17일에 설립되어 2005년부터 생산을 시작하여 처음엔 중국시장을 목표로 하였지만, 지금은 해외로 그 범위를 넓혀 중동, 한국을 중심으로 여러 나라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보일러 생산의 왕이라 불려다오.

현대중공업 연대법인은 크게 보일러와 발전설비를 주력으로 생산합니다. 생산되는 제품은 보일러 CFBC[Circulating Type Fluidized Bed Combustion], 발전설비 HRSG[Heat Recovery Steam Generator], 초임계 압력 보일러입니다. 초임계 압력 보일러는 이번 년도에 생산되고 있는 새로운 기술을 담고 있는 보일러로, 초임계 상태에 도달하였을 때 물의 성질을 이용한 보일러입니다. 공장은 1공장과 최근에 건설된 세 번째 건물을 포함하는 2공장이 있습니다. 생산된 부품들은 완성된 후, 각각의 수출국으로 보내져 조립 됨으로써 완성됩니다.



■ 김선영

나는야 생산2부의 귀염둥이.

처음에 귀가 잘 트이지 않아 중국어를 잘 알아듣지 못하고 더욱이 중국 분들과 식사 시간도 함께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다가가기가 정말 힘든 점 때문에 제 부서생활의 시작은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도 잠시, 먼저 말 걸어주시고, 질문도 많이 해주셔서 제 긴장은 곧 풀렸습니다. 또한 제가 긴장해서 중국어를 잘 못 알아들을 때는 직접 한자를 써 주시거나 차근차근히 뜻을 알려주시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말투가 무뎡뎡해서 어렵게만 느껴졌던 분들인데 제가 무슨 말만하면 다들 즐거워 해주시고, 먹을 거 있으면 챙겨주시고, 공장 밖에 있으면 얼굴 탈가 밀집모자도 가져다 주시곤 하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초기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저는 어느새 생산2부의 귀염둥이가 되어있었습니다.

살아 숨쉬는 중국 문화 체험을 통해 중국의 매력에 퐁당.

작년에 중국 천진에서 어학연수를 했지만 언어의 장벽과 더불어 중국 친구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했기 때문에 중국 문화에 대해 많은 깨달음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연대법인에서 중국 분들과 함께 일하고, 일상생활을 함께 하면서 자연스럽게 중국인들에 대해 이전에 가졌던 부정적인 편견도 사라지고, 이해도가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중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기 위해 넓고 광활한 대륙의 역사적으로 유서 깊은 장소를 찾아 주말마다 여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회사 안, 밖으로의 중국 문화 체험을 통해서 저는 중국을 더 사랑하게 되었고 중국만큼 매력적인 나라가 또 있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 김윤아

글로벌인턴은 내 인생의 터닝포인트.

재료공학을 전공하는 학생이지만, 공학보다는 언어에 관심이 더 많은 저는 2가지 물음을 안고 인턴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첫째, 전공은 공학이지만 전공공부를 소홀히 한 내가 과연 기술직에 흥미가 있을까? 둘째, 해외취업을 꿈꾸는 데, 정말 해외취업을 하면 나는 행복할까? ‘기술직 해외인턴’은 제가 몇 개월간 고민해왔던 진로에 대해 답을 찾아줄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생각에 떨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에 부응하여 글로벌인턴은 제 인생에 큰 획을 그은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앞에 언급했던 2가지 문제의 해답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한국에 돌아가서도 인턴으로 임했을 때의 열정 그대로 제 꿈을 위해 열심히 노력을 한다면 꿈은 이루어질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의사소통을 넘어 마음의 소통을 전달하는 중국어.

약 560명의 중국인이 근무하는 현대중공업 연대법인은 중국인과 교류할 수 있는 최대 기회의 장입니다. 매일 아침 그들에게 중국어로 인사를 건네고, 쉬는 시간에는 직원들과 함께 제기도 차고, 여성 탈의실에서 청소 아주머니들과 수도도 떨기도 했습니다. 인턴 생활 한 달 즈음 평소엔 친하게 지내던 한 30대 직원 분이 퇴사를 한다고 해서 너무 섭섭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너는 최고로 좋은 한국인이야, 네가 중국어를 하는 것도 너무 멋지고, 난 너를 평생 잊지 못 할거야.” 라고 그 분이 제게 해주신 말씀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고, 평생 잊지 못할 사람이 된다는 것은 처음에는 과분한 칭찬으로 다가왔으나 곧 만나는 직원들에게 더 선량하게 대해줌으로써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다는 의지로 나아갔습니다.



-문화탐방-

태산, 칭다오



김선영 태산이 높다하되 하늘 아래 산이로다.

산둥 반도에서 꼭 방문해야 할 도시 중 하나인 태산! 저희 둘은 중추절 (추석)을 이용해 다녀왔습니다. 밤 기차를 타고 7시간을 달려 태안 역에 도착하여 7시부터 태산 등산을 시작했습니다. 케이블카와 버스를 타고도 오를 수 있었지만 호기롭게도 저희는 태산의 대단함을 직접 경험하고자 직접 걸어 올라가기로 결정했습니다. 태산의 중간 정도의 높이에 있다는 중천문에 오르기까지 저희 두 인턴은 묵묵히 오르지만 했습니다. 중천 문에 도착하니 드디어 태산의 꼭대기가 보이기 시작했는데 그 대단한 높이와 기울기는 짜릿했습니다. 6시간의 대장정을 거쳐 도착한 태산의 정상! 태산의 풍경을 보는 순간 산을 오르는 동안에 쌓였던 힘듦과 피곤함이 한 번에 날라갔습니다. 그렇게 높게만 느껴졌던 태산의 정상을 찍고 나서 저희의 목표에 대한 다짐을 한번 더 하게 되었습니다.



김윤아 독일의 흔적을 고스란히 품고 있는 아름다운 도시, 칭다오.

산둥 반도에 위치한, 맥주로도 유명한 도시 칭다오가 1897년에 독일에 의해 점령당했고, 1914년에는 영국의 동맹국이던 일본에 의해 점령당했던 역사적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17년 동안 독일의 지배하에 석탄생산과 운송의 거점 역할을 하였던 칭다오. 소어산에 올라가 전경을 감상하면 “여기가 독일이야? 중국이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독일냄새가 짙게 배어있는 건축물들이 산 증인으로 그 자리에 남아 지난 역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청도 맥주의 역사는 독일 점령기로부터 시작됩니다. 독일 맥주 순수령에 기초해 1903년부터 본격적인 생산이 시작되었고, 지금은 중국 맥주만의 특유 비법으로 생산되고 있습니다. ‘청도 맥주 박물관’을 방문해서 그 역사를 직접 살펴보고, 맥주가 만들어지는 공정을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맥주 시음도 했습니다. 역시 병맥주와는 차원이 다른 신선한 맛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과 더불어 난생처음 시도한 카우치 서핑, 스페인 출신의 호스트 엘로이와의 만남,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 칭다오는 저희에게 더욱 특별한 장소로 기억될 것 입니다.





4th Global Intern
China

PHOTO ESSAY





INDIA

Hyundai Heavy Industries India Pune



이순호

운동 좀 해 본 걸음걸이, 구수한 사투리는 처음 본 사람을 당황시킨다. 취미가 탁구, 특기가 번역인 그 사진을 찍을 때 이마에 여실히 드러나는 주름은 그가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는지를 대변해 주고 있다.



박옥현

밥 먹을 때 항상 다른 인턴들의 국을 먼저 떠주고, 인턴들이 아프면 제일 먼저 걱정해주는, 든든하고 세심한 엄마 같은 존재! 항상 잘 먹으며, 먹는 것 이상으로 뭐든 열심히 하는 남자. 어딜 가든 인도 사람들의 시선을 받는 인기남이다.



정동규

일하는 것이든 노는 것이든 어느 하나 부족함을 느낄 수 없는 남자. 이런 그의 노력과 열정은 책상에 붙어있는 인턴 생활 10개월만 봐도 느낄 수 있다. 빠른 눈치와 머리 회전의 소유자로, 아이디어 회의와 게임을 할 때 더욱 빛을 발하는 사람이다.



심은혜

상큼발랄하고 시시때때로 항상 유쾌한 일을 찾아 헤매는 쾌락주의자. 그녀의 선홍빛 미소와 호탕한 웃음소리는 힘든 하루 일과로 지친 팀원들을 빠이팅있게 해주는 마력을 가지고 있다.



지아라

겉모습만큼은 현지 채용. 단아한 이목구비로 인도인들에게 공주라는 칭호를 얻을 정도로 인기가 좋다. 비록 막내지만 항상 동료들을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그녀의 마음만은 우리 팀의 최고령이다.

about

Hyundai Heavy Industries India Pune



사업의 요충지 인도 푸네법인을 소개합니다!

현대중공업 건설장비 사업부 인도법인은 인도의 서부 푸네(Pune)라는 도시에 위치해 있습니다. 푸네는 데칸고원에 위치하고 있어 인도의 다른 지역에 비하여 선선한 날씨를 자랑합니다. Pune Univ, Symbiosis Univ 등을 비롯하여 수많은 대학과 교육기관들이 모여있어서 세계 여러 나라의 유학생들과 인도 대학생들로 북적거리는 교육의 도시입니다. 반면, 빈번하게 마주치는 군인 아저씨들은 이 곳이 군사 도시라는 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푸네의 외곽지역은 외국 기업들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주정부 산업단지로 지정되어있는데, Mercedes-Benz, Volkswagen 등 완성차 업체의 조립공장과 JCB, SANY 등과 같은 인도 내 경쟁업체들의 공장이 위치한 곳이기도 합니다. 이는 현대중공업에 위협과 더불어 경쟁이 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지역이 법인을 운영하기 위한 기본적인 인프라와 인력의 수급, 유관업체들의 부품 공급 등에서 시너지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놀라운 성장, 건설장비 시장 No.1을 위하여.

현대중공업 인도 푸네 법인은 현재 시장 점유율 기준, 인도 내 건설장비 업계 3위(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건설장비 분야의 경쟁에 뛰어들어 지 5년 차에 점유율 17%라는 놀라운 성장으로 인도 시장에서 주목 받는 건설장비 메이커가 되었습니다. 최근 인도 경기 침체로 인한 루피화 약세로 건설장비 시장이 위축되었으나 탄탄한 내부 시스템을 기반으로 시장 점유율 2위(20%)를 목표로 모든 직원들이 현대 정신을 근간으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박옥현

첫 느낌.(9월)

처음 느꼈던 인도는 한 단어로 딱 표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저분한 거리, 향신료, 빨래터, 낯선 눈빛, 비포장 도로, 먼지, 냄새, 더위, 경적 소리, 판자촌, 소, 염소, 개, 춤과 음악, 그리고 수많은 사람과 오토바이. 제가 보고 듣고 느꼈던 모든 것이 인도라는 나라를 표현해 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인도다운 것. 누군가에게 잘 보이려 하지 않고 숨기려 하지 않아서 볼 수 있었던, 그 모든 것이 내가 처음 느낀 본연의 인도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중간 느낌.(10월)

과도기. 과도기엔 늘 어색함과 불편함이 수반됩니다. 한 시간 이상을 소요하는 출퇴근 길, 거리의 쓰레기, 인도인들의 향(기), 그들의 영어 발음, 현장의 냄새, 지갑을 빼져나와있는 인도화폐, 황인종을 바라보는 시선, 모기떼처럼 달려드는 장사꾼.. 한 달이면 그런 것쯤이야 고스란히 받아들여질 줄 알았던 모양입니다. 물론, 적응된 부분도 있겠지만 인도인들의 눈에 비친 나는 여전히 이방인일 것입니다.

끝 느낌.(11월)

뒤를 돌아보면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곳 역시도 그랬습니다. 많은 기대를 하지 않은 탓에 실망하지는 않았지만, 대부분이 그렇듯 지금 현재가 좋은지 아닌지는 시간이 지난 후에야 알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되짚어 생각해 보면, 힘들었던 일들은 분명 나를 위한 양분이 되었고, 인도는 곳은 낯설기보단 익숙함에 깊어져 갔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많이 가까워졌다 하여도, 미안함이 사소해져선 안되고, 고마움이 흐릿해져서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곳에서 함께 생활한 우리들은 서로에게 그리움과 즐거움, 웃으며 다시 만날 날들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 심은혜

'I'mpassioned.

저는 작년에 인도 첸나이 지역에서 2주 동안 현대자동차 해피무브 해외 봉사활동을 했던 경험이 있어 인도 생활이나 기후, 음식 등에 적응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자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현지에도 도착하니 중앙선도 없는 혼잡한 길을 달리는 차 안에서 이 곳에서 3개월을 어떻게 보낼까 하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N'arrow-minded.

저는 인도에서 생활하면서 그 동안 한국에서 제가 얼마나 편협한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상경계열 전공자이기 때문에 그동안 기계는 저와 다른 세계의 일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주재원 분들과 인도 직원들 덕분에 업무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건설장비나 현대중공업에 대해서도 더 많이 알 수 있었으며, 이전보다 제 시야를 더욱 넓힐 수 있었습니다.

'D'aily.

인도에서의 3개월은 매일매일이 새롭고 기다려지는 일상이었습니다. 주중에는 회사에 출근하며 업무에 관해 배우고, 주말에는 여행, 쇼핑, 맛집 탐방 등 다양한 문화생활을 즐기며 의미있게 보내며 하루 하루가 다르다는 것을 몸소 깨달았습니다.

'I'ncredible.

축제 기간과 주말을 적극 활용하여 푸네 근처의 관광지 뿐 아니라 아잔타/엘로라 석굴, 델리, 타지마할과 아그라성, 뭄바이, 고아 등 다양한 지역을 관광할 수 있었습니다. 다양성이 공존하며 타 문화의 잣대로 평가했을 때, 이상하리만큼 특이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인도를 비록 짧은 시간 체험하고 가지만, 인도는 알수록 놀라운 나라인 것 같습니다.

'A'cquisition.

전혀 알지 못했던 분야의 지식이나 새로운 문화를 체험하고 외국인들과 소통하며 깨닫게 된 것들도 제가 얻은 것 들 중 하나이지만, 3개월이라는 길지만 짧은 기간 동안 제가 얻은 가장 소중한 것은 새로운 인연을 만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순호

경험하지 않았다면 몰랐을 것들.

많은 사람들에게 ‘인도하면 생각나는게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대부분이 ‘더러운 나라!, 카레!, 간디!’라 답할 정도로 인도라는 나라에 대해 잘 알지 못할 것입니다. 저도 여기 인도로 오기 전에는 인도의 문화에 대해서 다소 생소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한 동기들은 평일에는 현지 작업자와의 많은 대화를 통해, 주말에는 인도의 유적지를 탐방하면서 인도의 문화를 직접 체험해보려고 하였습니다. 한 예로 회사에서 현지작업자와 같이 인도음식을 인도의 전통 방법인 오른손으로만 이용하여 먹어보기도 하고, 새참시간에는 인도 전통 차인 짜이를 같이 마시면서 인도에 대해서, 그들의 삶에 대하여 얘기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고된 현장 작업장에서 일하는 작업자들에게 다가가면 항상 웃음으로 우리를 맞이해주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상세한 설명을 해주는 모습에서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만 그들이 저에게 준 소중한 추억들에 대해 보답하지 못한 것 같아 아쉬움이 큼니다.

인생의 전환점, 꿈을 향한 초석.

한국에 남아있었으면 25살, 평범한 공대생, 꿈 많은 청년에 불과한 저에게 현대중공업 인도 푸네법인에서의 인턴생활 3개월은 제 인생에 정말 잊을 수 없는 소중한 추억이 되었고, 제 꿈을 향해 한 발짝 더 다가설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 정동규

CHAOS에서 피어난 COSMOS, 인디아.

인도인턴들은 한 가족처럼 친해졌지만 그 때와 지금, 변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여전히 알 수 없는 나라 ‘인도’라고 하고 싶습니다. 중앙선을 찾기 힘든 도로에 말로만 들던 소가 지나다니며 세계 2위의 인구를 자랑하여 굉장히 많은 자동차와 삼륜차 그리고 오토바이가 귀가 아플 정도로 심한 경적소리를 내면서 ‘사람보다 자동차가 우선’ 이라고 말하듯이 지나다닙니다. CHAOS란 표현이 적당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CHAOS에서도 COSMOS가 피어납니다. 어째서 나에겐 CHAOS인데 이들에겐 COSMOS란 말입니까? 도대체 그들은 ‘왜’ 가난한데도, 복잡한데도 낙천적일까요? 이 문제는 생각보다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고쳐야할 점이며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기에 때문입니다. 그들은 스트레스 받으며 ‘성공’에 초점을 두기보단 느슨하게 ‘행복’을 즐길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높은 곳만 바라보며 진정 중요한 것을 많이 놓치는 젊어서 바쁜 우리와는 다른 자세로 삶을 살아갑니다. 아마 현대중공업 글로벌인턴을 하며 업무적, 기술적 경험을 한 것 보다 ‘살면서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할 수 있는 3개월이라는 시간을 가진 것이 더 값질 것이다. 이 곳 INDIA는 우리 나라보다 분명 후진국이지만 전 오히려 많은 걸 배우게 됐습니다. 나아가 한국에 돌아가 왜 공부를 해야하는지, 왜 애국을 해야하는지, 왜 글로벌 리더가 필요한지, 왜 살아가야하는지 조금이나마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어서 아직 대학교 3학년인 저에게 전무후무한 값진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 지아라

인도에서의 생활, 제로베이스.

‘한 층 더 성장한 모습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발대식에서 인도로 파견이 되었을 때 말했던 각오였습니다. 파견 전 저는 특별한 경험 하나 없는 한 학기를 남겨두고 막연하게 휴학을 신청한 학생이었고, 앞도 보이지 않아 그저 막막하고, 자신감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실제로 사전교육 당시 제가 왜 뽑힌 걸까 생각이 들 정도로 다른 인턴들보다 부족한 점도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르게 생각해보니 그만큼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돌아올 수 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인도로 떠날 때, 마음을 비우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생각으로 하나 하나 배워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값진 경험은 나를 변화시켰다.

그리고 인도에서 생활한 지 두 달, 지금 되돌아보면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배움을 얻었고, 성장을 했습니다. 비록 업무를 처리하는 점이나, 영어 실력에서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지만, 사고방식도, 나와 미래에 대한 생각도, 그 외에 여러 내적인 면에서 많은 것이 변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른 인턴들이 겪은 수많은 경험과 자신만의 확고한 생각 가치관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주재원 분들과 법인장님의 일하시는 모습을 살펴볼게 되면서, 인도에 출장오신 여러 분들과 대화를 통해서 내가 그 동안 얼마나 안일하고, 우물 안 개구리처럼 살아왔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용기를 내서 더 많은 경험을 하고, 자신이 원하는 분야에서 애착을 갖고, 열정적으로 일을 하고 싶은 이 생각 평생 잃지 않고, 계속해서 노력하고 성장하는 내가 되고 싶습니다.

-문화탐방-



10월 6일~7일, 인도 불교의 성지를 찾아서! 아잔타 & 엘로라.

우리들의 첫 1박 2일 여행지는 아잔타와 엘로라였습니다. 여행 첫 날 구경한 아잔타는 1983년에 세계유산으로 등록된 계곡의 절벽 중턱에 조각되어있는 불교사원군입니다. 이곳에는 인류의 보물이라고 할 수 있는 벽화와 조각 등의 고대유산이 현존하며, 아름다운 벽화가 유명합니다. 고온다습한 풍토 때문에 남아있는 고대 인도 그림들은 전무한 상황이지만, 아잔타에 유일한 벽화가 남아있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전망대 위에서 바라본 경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여행 둘째 날에는 엘로라를 구경했습니다. 엘로라 석굴군은 1983년에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으며, 카이라사나타 사원은 인간이 만들어낸 거대하고 정교한 유적으로, 756년에 공사에 착수해서 완성할 때까지 1세기 이상이 걸렸습니다. 엘로라는 7~8세기에 만들어진 불교 석굴군, 6~9세기에 만들어진 힌두교 석굴군, 9세기경 만들어진 자이나교 석굴군으로 나뉘어지는데, 그 웅장함과 작은 조각들의 정교함에 놀랐습니다.



10월 13일, 뭄바이에서 울려 퍼진 우리 가락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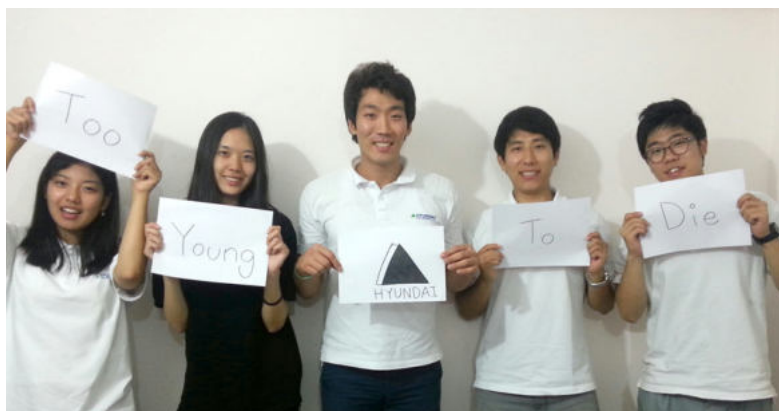
푸네에서 약 4시간을 달려 도착한 뭄바이에서 1911년에 영국 왕인 조지 5세 부부의 인도 기념으로 건립된 Gateway of India, 그 앞에 위치한 타지마할 호텔, 2004년 유네스코에 등재된 차트라바티 쉬바지 기차역과 Back Bay 등의 관광지를 둘러보고, 한-인 수교 40주년 기념 국립국악원 공연장으로 향했습니다. 공연은 우리나라 전통 음악 뿐만 아니라 유명한 인도 영화 OST들을 국악기로 편곡한 곡들과 초청 가수 공연 등으로 볼거리가 다채로웠습니다.





4th Global Intern
India

PHOTO ESSAY





BRAZIL

Hyundai Heavy Industries Brazil Sao Paulo



김나예

인턴들의 맏언니 같은 존재.
세심하고 섬세하며 여성스러움.
가끔 남자 넷과 여자 한 명이
파견된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을 정도.



정진아

건강에 대한 열정이 가득. 길거리
음식 사먹을 때 정확한 유해성분
색소 이름 말해서 간 떨리게 하는
우리의 식품의약청.
제스처로 현지인 주목을 끌고 유행을
만드는 아이.



정희경

멈출 듯 계속 이어지는 웃음소리가
매력포인트. 브라질에 맛있는 음식이
너무 많아 걱정이라는 위대한 여자.
주위사람까지 즐겁게 만드는
웃음바이러스 소유자



성윤모

우리 팀의 리더. 샤워하고 운동하고
다시 샤워하는 형. 미리 추운 것을
예상하고 옷으로 무장하고 자는 형.
에어컨이 싫은 형. 기침이 너무
심해서 쓰러질 듯 한데 쓰러지지
않는 형.



조영우

여기저기 잘 어물리면서 라면은
얼어오는 능력자. 한식만 보면 욕심부려
배터지게 먹는 미련함 장차.
모든 IT 문제는 전원을 껐다 켜면
해결된다고 말하는 IT가이.

about

Hyundai Heavy Industries Brazil Sao Paulo



떠오르는 산업도시에 위치한 HHIB.

현대중공업 브라질 법인은 남미 경제의 중심인 상파울로(São Paulo)에서 차로 3시간 정도 떨어진 이따찌아아(Itatiaia)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따찌아아시는 2천 800m의 높이의 산을 지닌 국립공원을 끼고 있는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치안이 상대적으로 안전한 살기 좋은 시골 동네입니다. 또한 상파울루와 리우 데 자네이로(Rio De Janeiro) 사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뛰어나 다국적 기업의 공장들이 속속들이 들어서고 있어 떠오르는 산업도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생산거점 구축해 브라질시장 공략.

브라질은 부족한 인프라를 구축하려고 정부주도의 국책사업이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2013년 월드컵, 2016년 하계 올림픽을 개최할 예정이라, 고속철 건설에 따른 건설장비 수요 증가로 인해 시장이 점점 더 커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대중공업 브라질 법인은 1억 7500만 달러를 투자해 2013년 4월 건설장비 공장을 준공하고 본격적인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앞으로 굴삭기·휠로더·백호로더 등 주력 건설장비 생산 규모를 연간 4000대로 늘려 중남미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판매량도 매년 20% 이상 늘려 2016년엔 브라질에서만 약 4500대를 판매한다는 야심찬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 김나예

지구 반 바퀴를 돌아야 갈 수 있는 나라, 브라질.

“이 기회가 아니면 언제 갈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브라질로 출발하기 전부터 무척 설레었습니다. 24시간의 비행을 거쳐 도착한 브라질은 느낌이 남달랐습니다. 이렇게 먼 곳까지 한국 기업이 진출해 있는 모습을 보고 글로벌 한국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곳에 오지 않았다면 이렇게 다른 세상도 있다는 것을 몰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생각의 폭이 넓어지고 깊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양한 것을 경험하면서 그 모든 것은 나의 자산이 되었습니다. 외국인과 영어로 대화하는 것에 걱정되었던 내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외국인 친구를 만들고, 거리낌 없이 말을 걸고 인사를 하면서 긍정적으로 변하는 제 자신을 많이 느낍니다. 자신감이 생겼고 새로운 것에 도전함에 있어서 걱정이나 두려움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곳에서의 경험들이 앞으로의 내 삶에 있어서 큰 자산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한국에서는 절대 해보질 못할 많은 경험들을 하였고 그로 인해서 제 인생의 얘기 거리가 풍성해 질 것이란 걸 알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오기까지 경험을 잡고 도전을 하고, 그렇게 뽐아서 이 자리에 와있는 지금, 이 기회를 소중히 여기고 얻어갈 수 있는 것은 모두 얻어갈 것입니다. 현대중공업 브라질 법인에서의 인턴이 끝나고 한국에서의 제 모습이 기대됩니다.

■ 성윤모

글로벌 리더는 비빔밥.

다양한 재료를 가지고 섞고 섞어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내는 비빔밥과 같이 다양한 생각, 문화를 가진 사람들을 존중하고 우리의 것과 적절히 섞어서 최고의 성과를 내는 비빔밥 전략이야말로 글로벌 리더가 되는 길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브라질은 무한한 가능성의 나라입니다. 2억에 가까운 내수시장, 풍부한 천연자원, 광활한 영토 등 강대국이 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이런 조건에서의 차이들은 우리나라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극복할 수 없는 부분들이기도 하고 앞으로 이런 무한한 가능성을 브라질이 어떻게 잘 활용하는지는 그들의 몫이기도 합니다. 10년뒤 저는 또 다른 브라질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조금 더 역동적이고 모든 이들에게 평등하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지금보다 훨씬 무서운 브라질을 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브라질에 있으면서 한국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해보기도 했습니다. 한국인은 정말로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불과 4월달까지만 해도 현대중공업 브라질 법인은 황무지에 불과했지만 8명의 주재원 그리고 2명의 파견자 분들께서 노력해서 지금의 크고 웅장한 공장을 건설했기 때문입니다. 현재도 8명의 주재원분들이 300명의 브라질 현지인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의 노동자 친화적인 노동법 그리고 현지의 높은 관세율에도 불구하고 이번 건설장비 정부입찰을 따내는 등 대단한 한국인의 근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날 중동에서 땀 흘려 일해 번 외화로 한국을 재건했듯이 이 곳 분들도 회사와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고 계십니다. 정말로 존경스럽고 한국에 가셔도 반드시 생각날 것입니다.

■ 정진아

미지의 브라질.

현대중공업 브라질 법인에는 한국도, 브라질도 없습니다. 신규 법인의 특성상 한국 기업 문화와 브라질 기업 문화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굳이 기업 문화를 정의하고자 한다면, HMB 문화입니다. 브라질 법인 주재원들과 현지 직원들이 문화를 새롭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브라질 특유의 여유를 태만으로 이어지지 않게 이끄는 주재원들, 그 주재원 밑에서 한국 기업 문화를 배워가는 현지인들을 보며 ‘브라질과 한국 기업 문화의 중간은 무엇일까?’ 라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브라질 문화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식민지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브라질은 오랫동안 포르투갈의 식민지배를 받았습니다. 언어도 포르투갈어를 사용할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관광지인 히우(Rio De Janeiro)에 가면 많은 유럽풍의 건물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아직 브라질 사람들에게 식민지배 역사가 남아있는 듯 합니다. 브라질 사람들에게 잘못을 인정하기를 바라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식민지 시대에 노예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해버리면 바로 죽게 됩니다. 그래서 브라질 사람들과 대화할 때는 좀 더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말을 하게 됩니다. 정황을 자세히 설명하고 그 근거를 제시해야 그들은 인정을 합니다. 그렇기에 한국인들이 입에 달고 사는 ‘죄송합니다.’는 그들이 한국인에 대한 금금증을 더욱 증폭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 정희경

귀중한 경험들.

아직은 우리에게 낯선 나라 브라질에서 인턴생활을 하며 다시는 하지 못할 소중한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먼저, 일을 하는 동안 현지인들과 소통하면서 이 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현지인 동갑내기 친구들과 제 생각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배울점은 무엇인지 등을 알기 위해 소통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아직 학생에 불과하지만 여기서 일하는 대부분의 동갑내기 친구들은 사회인인 동시에 저와 같은 학생입니다. 브라질에서는 학비를 벌기 위해 낮에는 본인 전공과 관련된 일을 하고 밤에 야간대학을 다니면서 학업을 이어가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분명 같은 나이고 같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지만 그들과 대화하면서 제가 많이 어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 부모님께 의지하는 저와는 반대로 그들은 성인이 되자마자 경제적 독립과 동시에 자율적인 공부를 이어갑니다. 사람들이 너무 낙천적이어서 미래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하나 했는데 다들 꿈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에 저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자극을 받았습니다. 세 달 동안 인턴생활을 하면서 거의 매주 여행을 다녔습니다. 유명 관광도시와 더불어 시골로 가서 브라질 시골은 어떻게 생겼나 보고, 달리는 창 밖으로 극명하게 보이는 브라질의 심각한 빈부격차를 몸소 느껴보기도 했습니다. 사람 좋고 경치 좋은 브라질에서의 인턴생활은 더 넓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 조영우

브라질에서의 배울점.

적응 기간이 지나고 본격적으로 임무를 맡아 일을 하게 되었는데, 학교만 다니다가 처음으로 회사생활을 경험해보니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학창시절에는 시키는 과제만을 해왔는데 회사에서는 시키는 것만 하면 안된다는 것을 가장 많이 깨달았습니다. 어떠한 임무가 주어졌을 때, 그 부분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 임무를 맡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영향을 미치는 것이 무엇이며 대안사항 또한 무엇인지 등 폭넓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즉,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보라'는 속담이 제가 인턴생활을 하면서 배운 것을 함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일의 우선순위를 잘 판단하여 해결해야 한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브라질 사람들은 급한 일이 있음에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여유를 가지고 일을 하며, 정확한 일의 우선순위를 잘 몰라서 문제를 발생시켰던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브라질에서 생활하면서 그들의 인간성에 대해서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 사람의 경우에는 처음 만나는 사람과 친하게 대화를 하거나, 자신의 시간을 써가며 도와주는 경우가 드물고 눈치를 많이 보는 경향이 있지만 브라질 사람들은 길가다가 처음 인사를 한 사람과도 친구가 될 정도로 친해지며 항상 웃습니다. 또한 자신의 주말시간을 내주어 차까지 태워주며 여행을 시켜주는 모습을 보고, 각박하게 살아가지 않는 그들의 삶에서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행동하는 모습에서도 부러움을 느꼈습니다.



-문화탐방-

이과수 폭포



이과수 폭포를 가다.(브라질 보트투어, 그리고 전망대)

세계 3대 폭포중의 하나인 이과수 폭포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3국에 걸쳐있는 광활한 폭포입니다. 비단 이과수 폭포 뿐만 아니라 주변의 숲 모두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을 정도로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200개의 폭포를 통해 한꺼번에 쏟아지는 엄청난 양의 물은 그야말로 장관을 이룹니다. 이과수 폭포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이렇게 모두 세 국가에서 갈 수 있습니다. 그 중 우리가 제일 먼저 간 곳은 브라질 영토 쪽입니다. 브라질 코스에서는 보트투어를 즐길 수 있습니다. 약 1시간동안 보트투어를 하면서 비단 이과수 폭포 뿐만 아니라 폭포를 둘러싸고 있는 울창한 숲을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브라질 보트 투어는 스릴이 넘칩니다. 거의 폭포 근처까지 보트를 타고 가는데 이때 이과수 폭포로 온몸이 물에 젖어 추위를 느끼지만 서로의 모습을 보면서 깔깔대며 웃으면서 유쾌하게 경관을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로 이런 폭포가 있을 수 있구나 생각할 정도로 그 크기가 굉장합니다. 또한 매우 붉은 물줄기가 동시에 떨어지며 내는 소리에 옆 사람의 말소리도 듣지 못할 정도입니다.



아르헨티나 악마의 목구멍.

폭포가 어떻게 생겼길래 악마의 목구멍이라고 불릴까 생각하면서 그 곳으로 향했습니다. 비록 폭포는 하나지만 초당 6만톤의 물을 퍼붓는 악마의 목구멍, 그 압도적인 규모가 우리의 넋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가만히 폭포를 내려다 보고 있다면 나도 모르게 빨려 들어 갈 것 같은 묘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곳에서 '자연의 위대함 앞에서 우리는 정말 작은 존재에 불과하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고 '꼭 한 번 가족과 함께 다시 오고 싶다' 라는 생각도 들어 갑자기 부모님이 생각나기도 하였습니다.

탱고의 매력에 빠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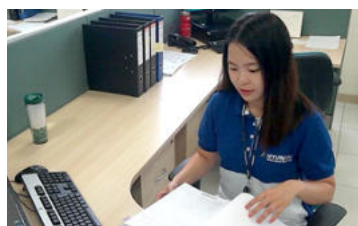
'Refain' 이라는 유명한 식당에 갔습니다. 이곳 식당이 유명한 이유는 Churrascaria (다양한 고기 종류와 부위별로 자신이 먹고 싶은 만큼 무제한으로 먹는 고기 뷔페방식의 브라질 전통 음식)방식의 고기 뷔페식과 함께 1시간 동안 남미 각국의 전통춤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춤은 아르헨티나 탱고였습니다. 남녀 커플이 추는 빠르고 매혹적인 탱고를 보며 감탄사가 절로 나왔고 아르헨티나의 정열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4th Global Intern
Brazil

PHOTO ESSAY





Hyundai Heavy Industries
Belgium Geel



이충원

삐쩍 마른 몸에 식욕이 좋은 그. 항상
웃음기 가득한 얼굴에 화를 낼 줄 모르는
B형 남자. 머리 속에 궁금증 한 가득.
배우고 싶은 열의가 충만. 점점 현지
직원들에게 팀의 일부로 인정받아
가는 중.

about

Hyundai Heavy Industries Belgium Geel



유럽의 지리적 요충지에 위치한 벨지움 법인.

벨지움 법인은 벨기에의 수도 Brussel에서 북동쪽으로 대략 80km떨어진 Geel이란 지역에 위치해있습니다. 법인의 부서는 크게 회계, IT, 판매, 마케팅, 부품, 서비스, 물류로 나뉘어져 있고, 법인장님 이하 3명의 주재원들이 불철주야 업무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완제품의 대부분은 본사 주문을 통해 선적되고, 바다와 인근한 Antwerpen의 Warehouse에 재고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일부 A/S와 고객서비스에 대응하기 위한 부품들은 Local이나 인근 유럽국가에서 공수해 오기도 합니다. Supplier와 Customer의 대부분은 프랑스, 독일, 영국이며, 이 밖에도 베네룩스, 스칸디나비아 등의 유럽국가를 대상으로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불어, 독어, 네덜란드어, 스페인어를 사용하여 다양한 언어를 접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토끼보다는 거북이처럼 차근차근 나아가는 벨지움 법인.

건설기계 산업의 본고장으로 알려진 유럽에는 현재 수 많은 경쟁사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미국, 독일, 일본, 중국 등의 건설업체들이 유럽시장에 차별화된 제품을 선보이며 경쟁을 압박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유럽에 불어들인 재정위기로 인해 더욱 어려운 사업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벨지움 법인은 꾸준히 실적 증가를 통해 외형을 키워나가고 있고, 현재 CIS국을 제외한 전 유럽국가로 그 판매망을 점차 넓혀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인턴수기

■ 이충원

다른 듯 하면서도 같은 우리는 지구촌 사람들.

운이 좋게도 저는 초대를 받아 현지인 가정을 방문해 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주로 아파트에서 생활하는 우리와는 달리 대부분 마당이 딸린 주택에서 생활하는 현지인들의 삶의 질은 비교적 우리보다 높게 느껴졌습니다. 반면에 최근 유럽에 닥친 경제 위기로 인해서 취업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또래 친구들의 얘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유럽인들과 우리는 겉모습이 다르고 생활환경도 다르지만 서로 비슷한 것에 고민하며 공감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서양인에 대한 선입관을 없애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오늘날은 정보통신의 발달로 서로 다른 문화를 빠르게 수용하고, 전세계 사람들이 같은 정보와 사물을 취급하게 되면서 의식 수준도 점점 비슷해져 가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구촌 사회에서 우리는 다르면서도, 모두가 똑같이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2013년 Matexc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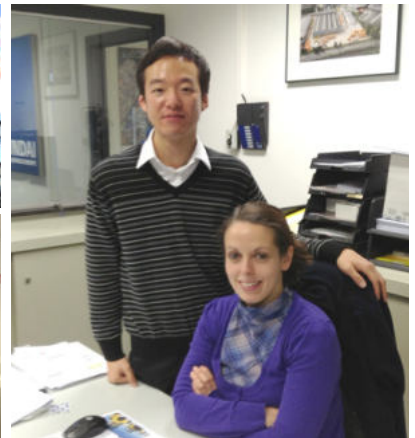
현지에서 인턴하는 동안 유럽의 건설장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박람회를 다녀왔습니다. 그 곳에 전시된 기계들은 아주 다양했고 엄청난 규모였습니다. 현지에서 바이어를 위해 어떻게 전략적으로 마케팅을 수행하는지도 몸소 느낄 수 있던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또한, 유럽사람들이 기계를 어떻게 생활화하고 이용하는지에 대해 새로운 시각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글로벌하고 빠르게 정보가 공유됨으로서 다가오는 변화와 성장을 박람회를 통해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4th Global Intern
Belgium

PHOTO ESSAY





Hyundai Russia Khorol Agro



고민희

항상 웃는 얼굴의 긍정의 여왕!
언제나 밝은 얼굴로 러시아 하늘을
밝게 만드는 능력자 그 순간을 즐기
중 아는, 오늘도 Let's go! 고민희!



안현주

강한 책임감과 풍부한 아이디어로
새로움을 추구한다!
한 번 그녀의 손에 맡겨지면 모든
일은 완벽하게! 어떤 일을 맡겨도
믿음직스러운 동생.

about

Hyundai Russia Khorol Agro



현대 연해주 농장.

현대 연해주 농장은 2003년 Martin&Irina Tate 농장을 구입하여 Khorol Zerno로 설립되었습니다. 2009년 현대중공업이 농장 지분을 인수하였고 2010년에는 Hyundai Khorol Agro(이하 현대 하를 아그로)로 법인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2011년에는 현대 연해주 농장의 영농 다양화 및 규모확대를 위해 Hyundai Mikhailovka Agro(이하 현대 미하일로브카 아그로) 신설하였고 2012년에 현대 하를 아그로는 낙농사업으로 까지 진출하였습니다.

현대 연해주 농장의 영농사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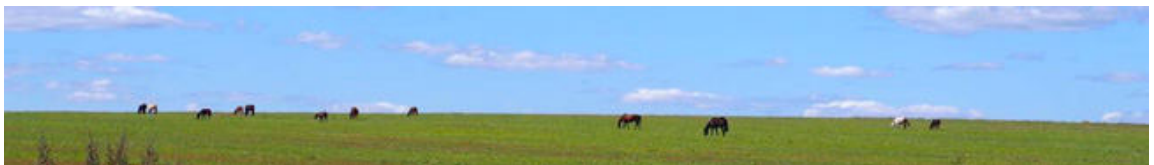
현대 하를 아그로의 관리면적은 5,367ha 이며, 현대 미하일로브카 아그로의 관리면적은 3,353ha입니다. 총 운영면적 9,651ha 가운데 2013년 파종면적은 6,900ha이며, 잔여 농지는 차년도 경작을 위해 휴경하고 있으며 현재 사료용 옥수수와 콩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낙농사업 현황.

현대 연해주에서 가장 깨끗하고 최신식 설비를 갖춘 현대자원개발 목장은 새로운 소를 도입하기 위한 준비 중이며, 이 새로운 소는 바로 '젖소의 왕'이라 불리는 우유종인 독일 품종 '홀스타인' 입니다. 암소는 연평균 5000~6000kg의 우유를 생산하며, 우유종 중 가장 많은 우유를 생산합니다.

연해주 농장의 비전.

앞으로 현대 연해주 농장은 해외 농업 개발사업의 전진기지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또한 곡물 국내 반입을 통해 식량안보에도 기여하려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수익성을 강화하고자 3만톤 곡물 생산 및 저장 능력을 갖춰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현장경험을 통해 농업법인 관리 및 운영 경험을 축적하여 영농역량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인턴수기

■ 고민희

비 온 뒤에 더 굳어지는 땅처럼.

소포 하나를 부치기 위해 우체국에서 몇 시간이나 기다려야 하고, 병원을 가도 제대로 된 진찰을 받기 위해선 1주일을 기다려야 하는, 심지어 이러한 절차를 개선하고자 하는 움직임조차 없는 곳이 바로 ‘러시아’입니다. 부조리한 행정체계, 러시아 연방 노동법 등 이렇게 우리와 다른 점이 많은 러시아에서 사업을 하는 것은 강한 모험심과 끈기를 요구합니다. ‘시련이란, 뛰어 넘으라고 있는 것이지 걸려 엎어 지라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정주영 회장의 말씀과 같이, 연해주 농장은 강한 모험심과 끈기를 몸소 보여주며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있습니다. 연해주 농장에서 일하면서 현대중공업 강점인 현재의 상황에 비판하지 않고, 미래를 낙관하는 자세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나의 미래를 향하여.

“왜 노어노문학과를 전공으로 선택했는가?” 라는 질문을 받을 때 마다 저는 형식적으로 ‘러시아는 지속적으로 성장 중이기에 러시아어가 가장 경쟁력이 있는 언어이고 취업에도 유리할 것이기에 러시아어를 선택했습니다.’라고 대답해왔습니다. “앞으로의 꿈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러시아에 매장되어 있는 자원을 활용하는 기업에서 일하는 것.”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곳, 연해주에서 저는 그저 알팍한 취업이라는 문이 아닌, 저의 미래로 향하는 문을 찾았습니다. 마치, 현대자원개발의 연해주 농장처럼 낙관적인 자세로 미래의 거대한 목표를 위해 달려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습니다. 수많은 장벽이 있어도, 러시아 땅 위의 무궁무진한 기회가 우리 눈 앞에 있습니다. 이러한 기회를 살려, 언젠가 국익을 위한 자원 프로젝트를 직접 실현하고 싶습니다.

■ 안현주

거북이처럼 나아가는 연해주 농장.

동화 ‘토끼와 거북이’에서 토끼는 거북이를 보면서 달려 가지만, 거북이는 자신의 목표를 향해 나아갑니다. 저는 현대자원개발의 연해주 농장은 거북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초기 단계라서 발전속도와 가시적인 성과가 확연히 드러나지는 않지만, 현대자원개발의 연해주 농장 법인의 목표와 미래의 발전가능성을 미루어 보았을 때, 그 목표를 향해 한걸음씩 움직이는 모습에서 자부심이 느껴집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말처럼 자신의 하고자 하는 의지와 목표가 있다면 수많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나아갈 길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이곳에서 배웠습니다.

생생한 현장근무를 통해 배우다.

연해주 지역은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는 기회의 땅입니다. 한국과 매우 인접한 지리적인 이점이 있고 비교적 대규모 농지 확보가 쉽습니다. 또한 곡물메이저의 진출이 없고 북한과의 관계발전의 잠재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의 인턴생활은 가장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생생한 현장을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연해주에 진출한 현대자원개발의 연해주 농장 법인은 무에서 유를 창조해 내는 현대의 도전정신을 직접 실현하고 있는 곳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탐방- Vladivostok



러시아의 부동해.

극동러시아의 가장 큰 도시인 '동방을 지배하라.'라는 의미의 '블라디보스톡'을 다녀왔습니다. 시베리아 횡단 열차의 종착지로 유명한 블라디보스톡은 60만여명이 사는 연해주의 제 1 도시입니다. 도시가 건설이 된지 154년 밖에 지나지 않아 러시아 역사로 보면 가장 막내인 도시입니다. 최근에 블라디보스톡은 2012년에 APEC 정상회담을 개최하면서 블라디보스톡이라는 이름을 세계에 알렸습니다. 블라디보스톡은 속초에서 출발하는 크루즈도 운행이 되고 있어 한국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국경이 접한 중국과 일본에서 블라디보스톡을 바쁘게 드나들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은 '동방에서 유럽을 느낄 수 있다.'는 도시 특유의 매력에 이끌려 이 곳을 방문하고, 사업가들은 최근 러시아 정부의 극동러시아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올라가는 전략적인 관점으로 방문합니다.



블라디보스톡의 관광요소.

특히, 날씨가 좋은 여름과 그 전후로 거리에서 3대의 분수대가 동시에 작동을 해서 거리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아르바트 거리를 20분정도 걸어 내려오면 해상공원에 다다르게 됩니다. 깨끗한 바다와 줄줄이 서있는 요트들, 그리고 유원지는 지중해를 연상시킵니다. 또한, 블라디보스톡의 항구에 위치한 거대한 다리는 바라보는 그 자체로도 감동을 느낄 만큼 웅장합니다. 생김새는 광안대교와 조금 닮았지만, 독수리 전망대에서 다리를 아래로 내려다 볼 수 있었기에 색다릅니다.

이웃나라처럼 느껴진 블라디보스톡.

마지막으로 APEC이 개최되었던 루스키 섬에 위치한 극동연방대학교는 캠퍼스가 바다를 둘러싼 모습으로 되어 있어 '여기서 공부를 한다면'이라는 생각을 저절로 하게 되었습니다. APEC때는 정상들의 숙소로 사용되었던 곳이 기숙사로 되어 있고, 학교 내에 해변이 있어 여름을 기다리게 하였습니다. 한국 식품들이 준비해있고, 지나가다 한국 노래도 들리는 블라디보스톡은 더 이상 먼 나라가 아닌 이웃나라로 다가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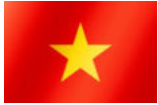




4th Global Intern
Russia

PHOTO ESSAY





VIETNAM

Hyundai Oilbank
Vietnam Hanoi



이은지

개구리 뒷다리를 치킨같이 먹고,
쫄쫄콘(부화지전의 메추리알)을
사탕 같이 먹는 옛지 있는 여자.
절대 흔들리지 않는 멘탈, 한번씩
날려주는 아빠미소, 충만한 개념으로
'직장의 신'이 될 것 같은 여자.

about

Hyundai Oilbank Vietnam Hanoi



현대오일뱅크 하노이지사는 2012년 5월에 설립 인가를 취득하였으며, 7월 1일부터 지사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재원(지사장) 1명과 현지인 직원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노이지사는 베트남과의 석유산업 거래규모를 확장하고, 베트남 및 인근 동남아시아 국가에서의 신규사업을 개발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또한 현대오일뱅크 1%나눔재단의 기금으로 베트남 TuyenQuang 지역의 유치원 건축을 지원하는 등 베트남 현지 사회공헌 활동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1일에는 베트남 최대의 국영 석유수입업체인 Petrolimex社와 약 1천억원 규모의 석유제품 수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정유공장, 터미널사업 등 각종 석유 및 에너지와 관련한 투자기회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미얀마, 라오스 등 인근국가도 주시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성장 잠재력이 큰 나라 중 하나로 꼽히는 베트남의 국토는 33만km²로 한반도의 1.5배에 해당하며, 인구는 약 9천 5백만 명으로 세계 14위입니다. 현재 베트남의 1인당 GDP는 약 2,500불 수준이지만, 매년 5%가 넘는 경제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석유/석유화학 제품의 수요 증가로 이어지고 있으며, 그에 따라 베트남 시장에서 현대오일뱅크의 사업기회 역시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 이은지

인턴수기

우물 안 개구리가 개구리 뒷다리 뜯기까지.

여학연수는 커녕 해외여행 한 번 해보지 않은 우물 안 개구리, 그게 바로 이은지 입니다. 환영식 자리에서 지사장님께서 말하셨습니다. “우리 공주는 안 키운다. ‘해봤어?’ 그게 현대정신이다.” 일단 ‘해보는’ 나의 베트남 생활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도전정신으로 가는 곳마다 친구들을 만들었고 베트남 길거리 음식에 급속도로 적응해 아무데나 앉아 참새, 개구리를 먹었습니다. 홀로 호치민-냐짱 여행도 다녀왔습니다. 발로 뛰며 직접 눈으로 보고 몸으로 느끼는 태도를 배웠습니다. 우물 안 개구리가 개구리 뒷다리를 뜯기까지는 지사 분들의 보살핌이 있었습니다. 혼자 파견된 인턴의 등을 떠밀어 길거리를 누비게 했고, 작은 시도를 할 때마다 큰 칭찬을 주셨습니다. 덕분에 제 안의 도전정신을 발견했고, 더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었습니다.

글로벌리더의 개선문이었던 3개월의 인턴생활.

베트남에서 인턴을 하면서 글로벌리더들을 직접 현장에서 만나서 배우고 가능성을 알아갈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자기만의 독특하고 강력한 무기와 그를 뒷받침하는 도전정신과 성실함이 글로벌리더의 핵심가치이자 저 이은지가 인턴생활에서 몸소 체득한 진리였습니다. 이제 이은지라는 글로벌리더 한 명이 세상에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4th Global Intern
Vietnam

PHOTO ESSAY





-문화탐방-

호이안, 다낭

당황하지 말 것, 여기는 안 되는 게 없는 베트남.

귀국을 일주일 앞두고 베트남 중부 호이안에서 첫날밤을, 그리고 해안도시 다낭에서 마지막 밤을 보내는 여행을 떠났습니다. 숙소로 도착해 체크인 하려는 순간, 이럴 수가! 호이안 숙소를 다낭과 서로 바꿔 예약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함께 간 친구는 저를 때려보았고, 식은 땀이 났지만 문득 지사장님께서 입버릇처럼 하시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베트남에서 안 되는 게 어딴?” 갈고 닦은 애교를 가득 담아 물었습니다. “아잉(오빠), 타이 조이(change)?” 문제는 깔끔하게 해결해되었고, 저희는 업그레이드된 방에서 호화롭게 잘 수 있었습니다.

호이안, 자전거 탄 풍경.

하노이에서 오토바이 행렬을 보다가 호이안에 오니 도로가 그렇게 한산해 보일 수 없었습니다. 겁도 없이 자전거를 빌려나선 길거리는 생각보다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빠르게 달리는 오토바이들이 양 옆으로 휙휙 지나가고, 차들은 경적을 울려댔습니다. 관광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오니 온몸에 알이 배겨 있었지만, 혼자 힘으로 베트남의 길거리를 달렸다는 것이 무척이나 뿌듯했습니다.



나는 지금 다낭 바닷가.

마지막으로 찾은 곳은 다낭의 해변입니다. 고운 백사장에 앉아서 혼자 조용히 지난 3개월을 돌아봤습니다. 먼저 든 생각은 인턴기간에 대한 감사였고, 다음에 든 생각은 앞으로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지금은 여기서만 할 수 있는 걸 하자고 생각하며 다시 다낭 밤바다를 따라 찰박찰박 걸었습니다.

끝까지 방심은 금물, 여기는 베트남.

밤 비행기를 타기 전, 다낭의 야경을 바라보며 저녁을 즐기고 있을 때 온 문자, ‘비행이 취소 되었으니 내일 아침 비행기를 이용하세요.’ 비행 두 시간 전에 문자 하나 달랑 보내 취소를 통보하는 나라에서 3개월을 산 저는 당황하지 않고 마지막 밤을 어떻게 보낼까 궁리하며 나섰습니다. 끝까지 방심할 수 없게, 마지막 순간까지 참 베트남스러웠던 저의 베트남이었습니다.





Hyundai Vietnam Vinashin Shipyard



이정길

팀의 만형으로서 뒤에서 팀원들을 잘 도와주고, 베트남어는 몰라도 모든 현지 인들을 베스트프렌드로 만드는 숨은 능력자!
베트남 현지화 100%인 어디서도 적응력이 뛰어난 이정길!



김민진

내 앞길을 막지마라!!
언제 어딜 가나 제일 앞장서서
진취적인 스텝을 밝히는 HVS의 큰 누나!!
업무, 생활에서 보이는 불도저 같은
진취성과 유학파로써 3개 국어에
능통한 능력은 그녀의 진취성을 더해
준다.



최선락

아는 것 많은 척척박사 스마트한
팀 리더. 유머스럽고 재치스러운
말투와 몸짓으로 언제나 어김없이
우리 인턴들을 즐겁게 해주는
분위기 메이커.



박보경

팀의 막내로 분위기 메이커이자
하나뿐인 베트남 스피커로,
인턴 내 최고의 흥정의 달인~ 부장님,
인턴들, 베트남인들을 성대모사하는
관찰력의 달인 유쾌한 박보경 양!



하경현

무엇이든 맡기면 다 해결되어
돌아오는 미포조선의 하빈치.
항상 든든하게 뒤에서 섬세함과
배려심으로 우리들을 따뜻하게
챙겨주는 혼하지 않는 훈남.

about

Hyundai Vietnam Vinashin Shipyard



과거 선박 수리사업에서 직접 선박 건조까지.

‘동양의 나폴리’라고 불리는 베트남의 아름다운 휴양지 나짱(Nha Trang)에서 한 시간 떨어진 닌호아(Ninh Hoa)마을에 위치한 현대 비나신 조선소는 과거 베트남의 국영 조선소 Vinashin을 현대미포조선에서 인수하여 각각 30%, 70%의 지분율로 1996년 설립된 국내 조선업계 최초의 해외 설립 조선소입니다. 과거에는 선박 수리사업을 하였지만 현대에는 현지인의 높아진 숙련도와 현대미포조선의 고급인력과 기술력이 투입되어 Bulk 선박으로부터 시작하여 PC선까지 직접 건조하고 있습니다.

HVS의 구성.

HVS를 구성하는 근로자의 수는 약 4000명으로 이들 중 한국에서 파견된 직원이 75명이며 그 외의 인원들은 현지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사무직, 엔지니어 부서에 대하여 한국인 관리자들이 배정되어 있으며 이들의 관리, 감독하에 현지인들과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사무직, 엔지니어의 경우 과장, 차장, 부장 등의 관리직 인원이 한국인으로 구성되어 조직을 이끌어 나가고 있으며 현장 직원들의 경우 현대미포조선 본사에서 파견된 현장직원들이 교관으로 배정되어 현장근로자들을 지도, 교육하며 열정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PC건조와 함께 새로운 도약을 꿈꾸는 HVS.

HVS는 현대미포조선 본사의 수주에 따라 선박을 건조하였습니다. 주로 Bulk 선박을 건조하였지만 현재 조선경기 침체로 HVS에 대한 선박 수주가 없는 상태이며 최근 현대미포조선의 주문에 따라 Tug boat 3척을 건조하였으며 이를 9월 2주차에 인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부터 선박이 다수 수주되었으며 지난 12월에는 동시 최대 건조수인 12척을 동시 건조합니다. 과거에는 Bulk 선박을 주력으로 건조하였지만 현재부터는 고부가 선박인 PC (Product & Chemical tanker)을 건조하기 시작합니다. 현재까지는 조선경기 불황에 따른 수주부족과 HVS시설 설립을 위한 최초 투자로 인해 적자경영을 보여왔지만 향후 흑자 경영으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 김민진

인턴수기

더 큰 세상으로 향하는 문을 향한 두드림.

졸업을 앞두고 취직이라는 고민을 안고 출발점에 섰습니다. 제가 여태껏 밟아온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려고 계획했던 경로와는 전혀 다른 베트남이었습니다. 게다가 조선소에서 인턴이었기에 초기에는 3개월이라는 시간이 그저 시간낭비가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베트남 문화, 현대라는 조직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던 제가 이제는 어느덧 습하고 더운 베트남의 날씨에 완벽 적응, 현지 인들과 간단한 베트남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해짐은 물론 베트남의 전반적인 경제나 사회적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베트남에 오지 않았더라면 절대 알지 못했을 값진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풍부한 자원과 젊은 인력으로 떠오르는 해외시장 더 큰 세상으로 향하는 문을 향한 두드림.

회사업무의 대부분이 영어로 진행되고 새로 옮긴 총무부 내 직원들의 영어 구사 능력이 좋아서 놀랐습니다. 회사시스템과 현지인들의 말을 통해 베트남이 전반적인 부패도가 정말 높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부한 자원과 젊은 인력들이 지금보다 더 베트남을 발전가능성이 있는 해외시장으로 만들 것이라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레알(REAL) 사회생활이구나.

남초의 마초적인 분위기와 여자 인턴들의 발랄한 자유분방함이 가끔 충돌하기도 했지만, “아~ 이게 바로 사회생활이구나”를 실감하면서 회사의 규율이나 분위기를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알아가는 것이 중요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 박보경

사회 초년생으로서의 첫 도전.

현장에는 머나먼 베트남까지 오셔서 버프와 작업복을 입고 땀을 흘리면서 일하시는 한국인 직원 분들께서 계셨는데 그분들을 보며 다시 한번 우리 아버지들의 위상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업무가 끝난 후 한국인 직원 분들과 가끔 회사 근처에서 맥주를 즐기곤 했는데 저희에게 회사 상사이기 이전에 아버지로서 느끼시는 것들 또 저희가 사회 초년생으로써 앞으로의 도움이 되는 덕담들을 해 주셨습니다. 대학생으로서 그동안 제 학업, 스펙 쌓는 것에만 열중하였는데 이렇게 현장에 나와서 아버지들과 함께 일하고 얘기도 해보니 공감도 되고 좋았습니다. 사회 초년생이라 어리숙하기만 한 제가 이 곳에 와서 쓴 소리, 충고도 듣고 덕담도 들어서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베트남인 다 되었네.

전공이 베트남어이지만 베트남과 관련된 경험은 일주일 동안 여행간 것이 전부였습니다. 처음에 서투고 어색한 베트남어 발음으로 자기 소개를 한마디 한마디하고 제게 주어진 번역업무도 사전을 들고 일일이 찾아보면서 하루 종일 걸렸던 것이 기억에 남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지니 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 배고플 때는 교육부 내 직원들과 같이 과일도 까먹고 코코넛도 깨먹고 가끔 농담도 배우고 점심 시간에 시원한 매트를 깔고 과장님 옆에서 양말 벗고 누어 점심시간 끝날 때까지 자는 등 베트남 생활에 완벽 적응을 하였습니다.



■ 이정길

꿈을 꾸는 아름다운 자, 이정길.

사람은 꿈을 꿀 때 가장 아름다운 존재가 되며 과거와 미래가 섞여지는 꿈속에서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모습을 찾는다고 합니다. 삶을 바꿀 수 있는 무한의 열쇠라는 꿈을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앞으로 어떠한 사람이 되려는지조차 알 수 없었고 3대 세습의 정치 밑에서 굶주리고, 헐벗으면서 한끼한끼를 풀 죽으로 끼니를 때우던 7살 어린 소년, 지금도 그 시절을 생각하면 눈물이 앞을 가리고 가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날도 있었습니다. 한국에 와서 모든 것이 천국처럼 느껴지던 시기에 대학교에 입학하면서 나의 꿈이 무엇이고, 나는 어떠한 존재인지를 생각하게 되었고 끊임없는 도전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의 꿈은 세계가 알아주는 CEO가 되는 것이며 북한의 어렵고 힘든 사정을 생각하며 언제나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운전부에서의 자부심 넘치는 근무경험.

로테이션을 통하여 T/O(Test Operating DEP' T)시운전부에 배치 받았습니다. 아무리 품질 좋은 배를 완성했다고 해도 테스트하고 재점검하는 단계가 없으면 언제 문제가 발생할지 모를 뿐만 아니라 Buyer들이 완성된 배를 자기 나라에 가져가는 도중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시운전부가 완성된 배를 메인 엔진부터 시작하여 각종기계들의 정상화를 위해 검사하고 수정하는 작업은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시운전부의 작업은 Buyer들의 신뢰를 향상하고 더 나아가서는 회사의 이름을 세상에 널리 알리는 데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시운전부의 일원으로 일하게 되어 뿌듯했습니다.

더 힘들게 일할 각오가 되어 있었는데...

부서나 회사에서 그냥 인턴사원이고 또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회사에서 일하다 보니 업무를 시키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 조금 섭섭했습니다. 회사를 알아가고 업무 처리 능력부터 시작하여 회사사원으로써 갖춰야 할 인성과 지식을 배우는 것이 인턴 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서의 일이 많아 미처 업무를 배정해주지 못했을 수도 있고 저의 능력부족으로 업무처리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기회를 많이 주셨다면 더욱 많은 것을 깨우친 인턴생활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 최선락

전공에 따른 실무경험을 통해 업무 능력을 키우고 시야를 넓혀.

HVS에서는 인턴들이 각자의 전공에 따라 다양한 실무경험을 배울 수 있었는데 기계과인 저는 의장부에 배정받았습니다. 의장부는 기계과, 엔진 룸 배관 및 도장과, 선장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기계과에서 조선소 선박 건조의 기초과정부터 교육을 받고, 두 번째로 선박의 수많은 파이프 중 엔진 룸 주변의 파이프 배관을 담당하는 엔진 룸 배관 및 도장과에서는 선박 건조의 현장 실무를 자세히 배울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장과에서는 엔진 룸을 제외한 모든 구역에 파이프 배관을 하는 업무를 배웠습니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 처음에는 조선소 공정의 큰 틀을 이해하고 나아가 현장 실무를 자세히 배우고 업무시야를 넓힐 수 있었습니다.

업무 능력과 함께 키운 글로벌 마인드.

주말 동안은 개인의 의사에 따라 행동할 수 있었고 회사에서 나뉘어서 나가는 버스를 지원해주어 휴양지 관광 및 문화체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나뉘는 저에게 정말 매력적인 도시였습니다. 베트남이지만 휴양지이기 때문에 세계 각국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고 그들과 함께 호흡하며 다양한 문화체험을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회사에서 시행하는 CSR활동의 일환으로 현지 고아원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기도 하고, 맵인회를 방문 후원하고 일손을 돕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제게 정말 뜻 깊은 경험과 추억을 선물해주었습니다.

■ 하경현

사회생활이 무엇인지 알아가다.

한 척의 배를 건조하기 위하여 조직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 수 있었고 공동의 목표를 위하여 조직화된 단체가 어떻게 일을 해 나가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서로 협력하는 분위기 속에서 혼자 앞서나가는 것이 아닌 공동으로 협력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공동의 목표를 위해 스스로 참을 줄 알고 희생할 줄 알며 동료들을 밀고 끌어주는 회사의 분위기를 보며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실무 경험을 안겨준 글로벌 인턴.

현대비나신에서 인턴으로 활동하면서 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실무적인 사항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여기 저기 부딪치며 현장 업무를 경험할 수 있었고, 이러한 경험을 통해 저에게 부족한 면들까지 찾을 수 있었습니다. 3개월의 인턴십은 제가 앞으로 더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4th Global Intern
Vietnam

PHOTO ESSAY





Hyundai
Vinashin Shipyard

PHOTO ESSAY





SINGAPORE

Hyundai Oilbank
Singapore



김수정

싱가포르의 Crystal, 김수정.
그녀와 함께라면 언제나 즐겁다!
귀여운 외모와 불임성 좋은 성격으로
직원들의 사랑을 독차지 함.

about

Hyundai Oilbank Singapore



세계 3대의 오일허브, 싱가포르.

현대오일뱅크 싱가포르 법인은 1990년 지사로서는 최초로 설립되어, 가장 먼저 법인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싱가포르는 미주, 영국과 더불어 석유시장의 세계 3대 허브입니다. 우리나라와 지정학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싱가포르이기에 법인은 중추적인 역할을 맡게 됩니다. 싱가포르가 오일 허브로 성장한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싱가포르는 유럽과 아시아/태평양지역, 남반구를 중앙에서 연결해줍니다. 지리적 이점을 바탕으로 싱가포르는 무역 중심지이자, 컨테이너의 최대 환적지가 되었습니다. 원활한 물량거래조건과 방대한 무역량으로 인해 석유산업에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심이 깊고 잔잔한 자연조건도 오일허브 도약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방책으로 싱가포르에는 외국 기업에 대한 관세, 정부규제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덕분에 각종 금융회사 및 국영 석유사가 싱가포르에 진출해있습니다. 석유업계의 트레이더와 정유사들 또한 싱가포르를 기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싱가포르는 정유업계의 정세와 동향을 읽고 네트워크를 맺을 수 있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일당백 싱가포르법인.

싱가포르 법인은 다른 지사와 달리, 독립적으로 수익창출을 하게 됩니다. 법인은 적합한 거래처를 찾아 오일뱅크의 제품을 공급/판매하고,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오일허브 싱가포르의 시황과 정보를 수집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정유사와 수요지를 연결해주는 제3자 거래도 확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석유의 원활한 운송과 하역을 돕는 벙커링 사업 역시 신규개발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법인에 나와계신 주재원은 총 5분으로, 주재원 한 분이 한 팀의 몫을 '일당백'으로 해내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과 함께, 아시아 오일 및 금융 허브인 싱가포르에서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하루하루를 감사히 보냈습니다.

■ 김수정

인턴수기

시크하지만 어딘가 따뜻한 그들, Singaporean.

싱가포르인은 '당당하고 친절'합니다. 싱가포르가 도시국가임에도 선진국으로 성장한 만큼, 'Singaporean'으로서의 강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동시에 여러 민족이 섞인 다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서나 서로를 배려해 영어를 사용하고, 사소한 일에도 인사를 나눕니다. 자부심을 갖고 있으면서, 모두에게나 열린 마음을 보이는 싱가포르인들을 보면 제가 배워야 할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롤모델이 되어주신 현지 주재원분들.

싱가포르 생활을 더욱 행복하게 만들어준 것은 '좋은 사람들'입니다. 오일뱅크 법인 주재원분들은, 점심시간마저 사업미팅으로 활용하시며 하루 종일 바쁜 업무를 소화해내십니다. 그런데도 막내인 저에게 조언을 해주시고 맛있는 식당을 데려가 주시며 챙겨주시는 것을 보면, 업무 외적인 부분에서 마저 나중에 이런 선배가 되고 싶다는 롤모델이 되어주셨습니다.

나눔을 나누려는 욕심을 가득 안고.

싱가포르에서의 3개월은 깨달음의 연속이었습니다. 여러 민족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법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열정을 가진 프로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회인으로써 마주할 회사생활에 대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학생과 취업 준비생 사이의 제가, 한 박자 쉬어가며 많은 것을 받아들이고 돌이켜 본 소중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제 청춘에 이런 기회를 가질 수 있었음에 감사합니다.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 제가 받은 나눔을 더 많은 이에게 나눌 수 있도록 발전할 욕심을 가득 안고 살아야겠습니다.





4th Global Intern
Singapore

PHOTO ESSAY





SAUDI ARABIA

Hyundai Heavy Industries Saudi Arabia Tihama



권순성

제3국인 등과 스스럼없이 지내는
친화력! 캅때와 같이 뛰든 자기
조건을 요구한다! 하지만 그 뒤
에는 근로자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권순성!



김두민

털털한 웃음으로 듄직한 박두민!
경상도 사나이답게 개념과
예의는 확실하면서 모든 업무에는
최선을 다하는 남자. 잘생겼다!

about

Hyundai Heavy Industries Saudi Arabia Tihama



TIHAMA에서 성공적으로 입지를 다진 현대중공업.

영국의 한 발전회사인 TIHAMA가 사우디 Aramco에서 발주한 열병합발전소증축 공사를 수주함으로써 현재의 TIHAMA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TIHAMA사는 기술력이 부족하여 벨기에 회사를 OE(Owner Engineer)로 두고 현대중공업을 EPC Contractor로 선정하여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2012년 5월 3일 착공하여 2015년 4월 30일에 준공하는 계획으로 3억 달러라는 큰 이익을 창출하였습니다. 프로젝트의 이름은 TIHAMA Stage II Cogeneration Project 이고 설계, 구매 시공까지 현대중공업 도맡아서 실시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TIHAMA Stage I Cogeneration Project를 성공리에 마친 현대중공업에 다시 발주한 것을 보면 현대중공업의 신뢰가 상당히 높다고 평가합니다. TIHAMA 현장은 총 3곳으로 해안부근에 위치한 JGP, 내륙에 위치한 SGP와 UGP가 있으며 각 현장간 거리는 50~200km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JGP는 해안부근에 위치하고 있어 고온 다습한 기후이며 SGP와 UGP는 내륙에 위치하여 고온 건조한 기후를 나타냅니다.

휴일 없이 불철주야 열심히 근무.

저희가 머문 숙소는 Hofuf지역, SGP와 UGP현장 사이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각 숙소에서 현장과의 거리는 차 타고 30분에서 1시간 정도의 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새벽4시에 기상하여 아침을 먹고 5시에 현장으로 출발해야 했습니다. 하루 일과의 끝은 오후6시이며 사우디아라비아의 주말은 우리나라와 달리 매주 목, 금을 휴무로 정하고 있지만 바쁜 공정관리로 인하여 저희 현장은 매주 금요일을 휴무로 휴식을 취했으며 각 현장의 상황에 따라 불철주야 바쁘게 일했습니다.



인턴수기

■ 권순성

사우디아라비아 드림 Dream.

도착한 비행기에서 첫 걸음을 떼는 순간 느껴지는 숨쉬기 어려운 한증막 같은 열기와 함께 생각보다 적은 고층빌딩, 철근콘크리트가 아닌 콘크리트 블록을 이용한 건물들, 중동사람들 보다는 돈을 벌기 위해서 온 제3국 근로자들의 허름한 모습은 제가 생각한 기름 부자의 나라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환상은 조금씩 허물어져갔습니다. 중동에 많은 나라들은 부족한 인력을 보강하기 위해서 인도, 파키스탄, 네팔 등 여러 나라의 근로자들을 고용하면서 제3국 근로자들은 아라비안 드림을 꿈꾸며 큰돈을 벌기 위해 중동 국가에 와서 일을 합니다.

대한민국의 위상을 느낄 수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직접 현장에 머물면서 제3국 노동자들과 함께 일하면서 대한민국이라는 크기는 작지만 그 위상은 어느 나라보다 높으며 우리나라가 어떻게 지금의 위치까지 올 수 있었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높은 교육 수준과 근면, 성실한 성격, 안되면 될 때까지 하는 정신을 배웠습니다. 3개월의 짧은 인턴생활이었지만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한국과 높은 위상을 느끼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김두민

인턴 생활을 통해 얻은 4가지 배움.

첫 번째로 '확신'이라는 단어입니다. 두 번째로 조그마한 것부터 고치자! 라는 생각에 사우디의 기후와 플랜트 현장 공사라는 특정한 상황을 위해 '철저한 자기관리'를 배웠습니다. 세 번째로는 '융화와 이해'입니다. 이곳은 인도, 파키스탄, 네팔, 방글라데시 소위 빈국에서 온 근로자들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근로자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의사소통과 각 나라에 맞는 문화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들도 나와 같은 아들, 딸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먼 타지에서 고생하는 모습을 보니 부모님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꿈을 구체화 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앞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해외 생활에서 필요한 인내심과 어떤 상황이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적응력, 그리고 불규칙적이었던 생활패턴의 변화 등 많은 것을 사우디에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4th Global Intern
Saudi Arabia

PHOTO ESSAY



SAUDI ARABIA

Hyundai Heavy Industries Saudi Arabia Jeddah



권표중

해맑은 미소와 낙천적인 성격으로,
엄청난 진화력을 보여준 제다의
스마일맨. 튼튼히 공부와 운동을
하는 부지런한 성격까지!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하는
에너지원.



여찬용

날렵한 몸놀림으로 화려한 축구
실력을 뽐낸 “축구 대표” 엄청난
정보력으로 관광가이드를 자처하
지만, 어수룩한 부분이 귀여운
멋쟁이!



김진태

부장님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고,
GS들과 원만한 관계를 가지면서
먼저 다가가는 인턴. 일할 땐
일하고 즐길 땐 즐길 줄 아는 너는
센스쟁이!! 인턴은 물론 삼국인들까지
이미 베프로 만들어버린 착한 매력의
소유자!!



윤홍찬

진격의 거인?!이란 별명을 가진
에너지가 넘치는 사나이!
듬직한 외모와 일에 대한 열정은
“오빠 현장스타일!” 은 외치는 듯
하지만, 한편으로 마음이 여린듯한
제다조의 조장.

about

Hyundai Heavy Industries Saudi Arabia Jeddah



뜨거운 햇빛아래 바쁘게 움직이는 제다화력발전소.

36도의 뜨거운 햇빛과 시원한 바람이 부는 곳이 바로 제다화력발전소 현장입니다. 공사금액이 무려 3.5조원인 제다플랜트는 완공 되면 사우디전체 전력의 5%를 생산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설입니다. 이곳의 하루는 새벽 5시반에 알람과 함께 시작됩니다. 식사를 하고 오피스 앞에 모여 국민체조를 하고 파이팅도 외칩니다. 그렇게 6시반부터 이곳 현장의 일과는 시작됩니다. 에너지, 건축, 토목을 전공한 저희 4명의 인턴들은 현장업무를 배울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국인이라는 자부심도 느끼고 있습니다. 일과시간엔 복사, 스캔 부터 제품 스펙 분석, 현장근로자 관리, 작업지시, 장비운용까지 정말 다양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사우디는 석유, 가스 같은 에너지만 풍부한 것이 아니라 금이나 건설용 골재도 풍부하기 때문에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차장님의 말씀을 들으며 이곳으로 파견 오기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먹는 맛이 있는 제다현장.

여기 제다는 제2의 항구도시이고, 발전된 도시이지만 현장은 시내와 멀리 떨어져있고, 편의시설도 없습니다. 하지만 호텔조리사 같은 주방장님의 솜씨로 매끼 뷔페식사처럼 먹고 있습니다. 이슬람 국가라서 돼지고기는 먹을 수 없지만 매일 한 두끼는 꼭 닭이 나옵니다. 비록 가건물로 만든 시설에서 살거나 물이 종종 나오지 않는 불편한 점이 있지만 활력 있는 회사분위기 때문에 일할 맛도 나고, 회사 직원 분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현장 속에서 가능성을 배우다.

가장 좋았던 것은 많은 노하우를 가지신 직원 분들을 매일 만나며 실제업무나 작업과정을 옆에서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직원 분들도 현장은 열악하지만, 저희를 아들처럼 잘해주시려고 하고, 불편한 점이 없는지 자주 물어 봐주십니다. 휴일인 금요일에는 제다 시내로 놀러 가서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피로를 풀었습니다.

인턴수기

■ 권표중

찜질방의 느낌을 안겨준 사우디.

사우디 현장에 딱 도착하는 순간 드는 느낌은 “와.. 덥다.. 습하다.. 찜질방 사우나 같다!”라는 느낌이었습니다. 3개월을 살아야 하는데 그야말로 막막했습니다. 현장근무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하루 종일 뜨거운 땀병에 가만히 서서 건설장비들이 움직이는걸 보고 있자니 너무 힘들었습니다. 다행히 현장이 홍해 근처에 있어서 평소에는 바람이 많이 불어 측정되는 온도보다는 체감온도는 덜 덥게 느껴졌습니다.

문화를 이해하다.

우선 영어를 못하는 근로자들이 많다 보니 현장지시에 어려움이 따르기도 했습니다. 미국 땅에서 일을 하고 삼국 인들을 고용해 일을 하려면 그들의 문화도 이해하면서 서로 맞춰가는 역할이 중요함을 느꼈습니다.

샘솟는 애국심과 자긍심.

외국을 나오면 누구나 애국자가 되나 봅니다. 실제 외국인들이 차를 사면 현대차를 샀으면 하고 바라며, 웬지 모르게 국산 상품들을 보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또한 사우디 곳곳에 널리 퍼져있는 Made in Korea를 보면 자긍심이 생겼습니다.

■ 김진태

나 자신에 대해 생각하였던 시간.

사실, 파견 전에는 이곳에서의 생활에 대해서 걱정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곳에 도착해서 생활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 걱정은 한 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졸업과 사회진출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여러 생각을 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떤 것이 부족하고,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었던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힘든 경험이 주는 깊은 여운.

무더운 날씨와 계속되는 업무, 걱정이 끊이지 않는 앞날 속에서도 고된 노동과 진한 땀이 주는 경험과, 값진 노동 후 맛보는 맛있는 밥, 그리고 일상생활의 소중함과 감사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 여찬용

책임감과 자부심을 느꼈던 인턴기간.

한국, 그리고 이때까지 다녀왔었던 나라들과는 여러 면에서 많이 다른 사우디 아라비아에서의 2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11월이 되어도 30도가 넘는 날씨에 주변은 황량한 모래 사막뿐인, 가만히 서있어도 지치고 힘 빠지는 이곳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가족과 회사를 위해 바쁘게 일하시는 아버지들을 보면서 책임감도 배우고 그 분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아들 같은 인턴이 되겠다고 했었는데 스스로는 조금은 힘이 되어 드렸다고 자부합니다.

많이 다르기에 많은 것을 배운 사우디아라비아.

인턴 생활을 통해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해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웠습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남녀가 분리되어 있으며 여성활동에 많은 제약이 있는 점. 이슬람교의 성지인 '메카'에 다른 종교인의 출입을 철저히 허용하지 않는 점. 그리고 나라가 부유해서 그런지 일에 대한 의욕과 성취감이 부족해 보이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사람들 등... 이런 점들은 이슬람 문화를 처음 접해본 저에게는 모두 새로운 경험들이었습니다.

■ 윤홍찬

적극성을 배울 수 있었던 글로벌 인턴.

처음 부서에 배치되었을 때 뭐든지 잘 할 수 있다고 마음먹고 여러 가지 도전을 했는데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얻어서 뿌듯합니다. 인턴을 하면서 느낀 것은 사회와 한 약속을 잘 지키면 그만큼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큰일이나 사소한 일이나 직원 분들이 알려주신 사항이 있으시면 제때 해결하고, 방법이 없으면 인터넷이나 다른 직원들에게 물어봐서라도 어떻게든 결과를 만들어냈고, 안되면 체크해봤다가 어떤 부분에서 막히는지 말씀 드리고 해결했습니다.

인턴은 책임감이 가장 중요하다.

인턴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점은 뭐든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려는 마음과 한 번 맡은 것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끝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토목공학과 전공은 아니지만 모르는 것은 책도 뒤지고 물어보기도 하면서 제 머리 속에 넣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추억과 경력을 배워가는 글로벌인턴.

일과 후에 휴일이 되면 사우디에선 운동을 빼면 다른 여가생활이 거의 없기 때문에 직원분들은 대부분 영화를 굉장히 즐겨 보셨습니다. 다음기수 인턴들에게 현지직원들이 좋아하는 최신영화, 예능, 드라마를 꼭 챙겨가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대학생생활에 '기-승-전-결'이 있다고 생각하는 저는 지금 3학년 2학기 해외 인턴십이 '전'의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결과가 나오기 직전이라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힘들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인턴을 통해 더 많은 경력과 친구들과의 추억을 쌓아가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4th Global Intern
Saudi Arabia

PHOTO ESSAY





SAUDI ARABIA

Hyundai Heavy Industries Saudi Arabia HAL



김승근

HAL법인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리더인 우리 큰형!! 한없이 밝은 웃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항상 우리 모두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하면서 진지함을 가진 사나이.



심종섭

넘어져서 무릎에 구멍 뚫린 작업복을 입고 다니지만 매사에 긍정적인 사나이. 또 하나의 매력은 하루동안 많은 일을 하지만 언제나 웃음이 해맑은 친구. 결정적으로 누구보다 성실한 친구!!



황재운

HAL법인의 애교쟁이 황재우니! 사우디에서 사랑의 시련을 겪었지만 우리와 항상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이겨내고 있는 멋진 사나이. 절묘한 드롭샷을 날리면서 배드민턴을 잘치는 친구.

about

Hyundai Heavy Industries Saudi Arabia HAL



HAL법인.

HAL법인은 현대중공업의 사우디아라비아 현지 법인입니다. 법인은 AL-KHOBAR라는 도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각 현장에서 많은 현대중공업 직원들이 열사에 땅에서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HAL법인은 사우디아라비아에 내에서 원활한 플랜트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서 만들어진 법인입니다. 저희 인턴들이 각각 배정받은 현장으로는 JGP, UGP, SGP현장이 있습니다.

JGP(Juaymah Gas Plant) 현장에서는 공사 및 인력, 안전관리를 수행하고 있으며 때로는 사무실에서 하도급 업체 선정 및 인력 관리 파일 작성(공무)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UGP(Uthmaniyah Gas Plant)현장은 착공을 가장 늦게 시작한 공사입니다. 사실 2013년 09월 01일 착공이 이루어지기로 Exclusion Plan에 계획을 잡았으나 현재 2013년 10월 01일로 착공 날짜가 미루어 졌습니다. UGP의 최종 목적은 Gas & Steam을 이용하여 사우디 주민들에게 전기를 제공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며, 기존에 설립되어 있던 Plant에 규모를 늘리기 위한 증축 공사입니다.

SGP(Sedgum Gas Plant) 현장은 현대중공업이 수주한 티하마 발전회사의 티하마 열병합발전소 확장사업의 3개의 현장 중의 하나입니다. 3억불에 계약을 하였으며 2015년 4월 30일 준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HAL 본사인 Dammam에서 131km 떨어져 있으며 숙소인 Uthmaniyah Camp에서 64km 떨어져 있어 버스로 이동시간이 1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 김승근

거대한 모래폭풍 하늬, 그리고 분투.

거대한 모래폭풍인 하늬가 지나가면 아프리카의 농부들은 나일 강물을 끌어와 씨앗을 뿌립니다. 그들은 주어진 환경에서 불평만 늘어놓은 것이 아닌 최선을 다해 분투하고 있습니다. 반면, 사우디에 모래폭풍이 지나가면 그 자리에는 농부가 아닌 한국인들과 외국인 근로자들이 분투 중입니다.

설레었던 첫 업무의 기억.

이곳에 와서 첫 업무를 맡았던 기억이 납니다. 업무는 도면을 보고 벽돌, 단열재의 물량을 계산하는 적산업무였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기억을 되살리면서 계산, 엑셀까지 마무리를 제출했을 때는 혹시 잘못되지 않는지 하고 긴장을 했습니다. 업무는 실무자에게 쉬운 기초 업무였지만 그렇게 저는 기초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현장을 통한 실전.

책으로만 보던 이론이 아닌 실제 현장에서 배우면서 인력관리를 시작으로 건설공사 계약서 영문 번역을 하면서 계약서와 영어공부를 하였고, 업체 컨택, 레터작성을 통한 비즈니스 메일 작성법에 대해 배웠습니다.

나를 발견하게 해준 글로벌인턴.

어떤 환경이나 일에 대해 익숙하고 편하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별로 배울 것이 없다는 말이 됩니다. 새로운 스킬이나 경험을 배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별로 성장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와 통합니다. 이곳에서 가장 의미 있는 점은 더욱 배우고 성장할 일이 많아진 점입니다. 새로운 환경, 도전에 봉착하면 누구나 낯설고 불편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불편한 시간이 지나가고 나니 더욱 성장한 제 자신의 모습을 조금이나마 발견하였습니다.

■ 심종섭

영어공부와 회사생활.

커다란 설렘과 기대에 가득 차 온 그곳, 사우디아라비아. 현대중공업이라는 커다란 회사에서 일해볼 수 있다는 기대와 큰 포부를 안고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에서 느낀 점이 있다면 영어공부의 중요성과 회사생활의 어려움이었습니다. 그 점에서 아쉬움을 느끼고 돌아옵니다.

기대 반, 아쉬움 반.

기대를 많이 하고 간 티이라 파견 현장에서의 어려움이 아쉬움으로 기억이 됩니다. 업무시간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빡빡한 스케줄과 전공이 다소 상이했던 부분 등... 하지만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더욱 더 제 자신에 대해서 도전해보고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법을 배우다.

무엇보다 학습의 관점에서 기계전공을 살리지 못한 점은 아쉽습니다. 하지만 현장을 보고 느낄 수 있었고 회사분위기 및 기본적인 업무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관리자 역할까지 맡으면서 수 많은 근로자들을 어떻게 다루고 관리해야 하는지, 등을 다른 곳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좋은 경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 황재운

유목민의 삶의 현장, 사우디.

처음으로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이 곳에서 펼쳐질 저의 꿈이 너무나도 기대되었습니다. 현지인과 다양한 교류를 하지 못한 점이 다소 아쉬움으로 남았지만 그래도 오직 미래만이 존재하는 사막 한 가운데에 ATV를 20분 가량 타고 들어가자 수 많은 낙타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뭔가 낙타들을 보고 있자니 평온한 느낌을 받을 수 있었고 유목민들의 삶을 몸소 느낄 수 있는 색다른 경험이었습니다.

긍정적인 마인드를 배우다.

두 번째로, 사우디아라비아는 저에게 긍정적인 마인드를 주었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배운 긍정적인 생각은 한국에 돌아가게 되더라도 사우디가 저에게 선물해준 이와 같은 긍정적인 생각들이 남들에게 웃음을 주고, 행복을 전달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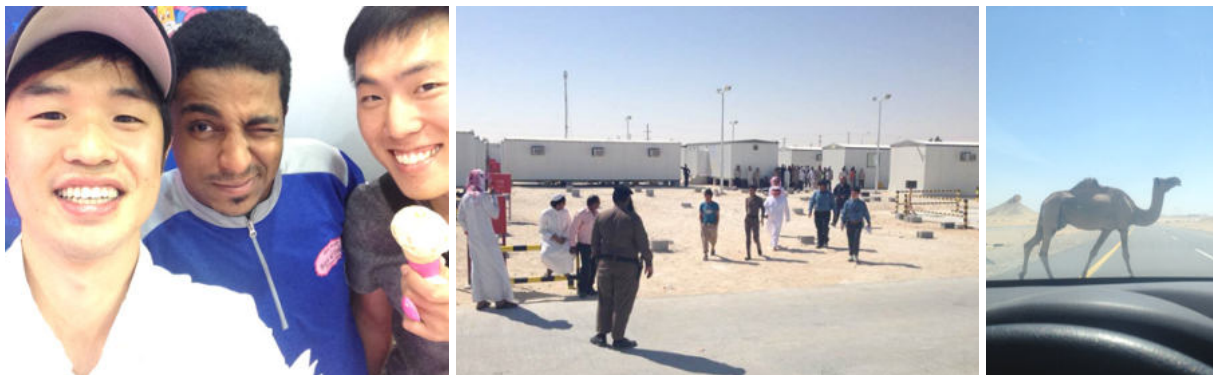
꿈의 가능성을 깨워준 글로벌 인턴.

끝으로 무엇보다도 책에서만 보던 현장을 몸으로 느끼면서 화공시스템공학과에 재학하며 “누군가에게 희망을 가져다 주고, 그 희망의 에너지를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달하겠다.” 라는 저의 꿈의 가능성을 살펴 볼 수 있었습니다. 열악한 사우디 환경을 지금 이렇게 되돌아 보니 그 순간순간이 저에게 너무나도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4th Global Intern
Saudi Arabia

PHOTO ESSAY



-문화탐방- 바레인

Saudi Arabia Tihama

권순성, 김두민

Saudi Arabia Jeddah

권표중, 김진태, 여찬용, 윤홍찬

Saudi Arabia HAL

김승근, 심종섭, 황재운



가깝지만 먼 나라, 바레인.

2013년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2박 3일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마음만은 가까운 나라 바레인에 다녀왔습니다. 사우디에서 바레인까지 힘들게 빠져 나와 숙소부터 잡았습니다. 숙소에 짐을 풀었을 시점이 거의 해가 질 무렵이라서 먼 곳 보다는 숙소주변에 위치한 월드 트레이드 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저녁에는 거의 2개월 만에 보는 인턴 동기들을 만나 즐거운 밤을 보냈습니다.

기억에 남는 카트라이더.

이튿날은 먼저 낙타농장을 방문하여 한국에서 쉽게 보지 못하는 낙타들을 구경했습니다. 다음 코스로는 바레인 수제품을 만드는 곳에 가서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였습니다. 오후에는 바레인 F1경기장을 방문해서 직접 카트를 타고 스포츠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9명 모두가 레이스에 올라 경쟁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이게 바레인 여행 중에 가장 재미있었던 일로 기억에 남습니다.



국립박물관과 그랜드 모스크.

셋째 날에는 바레인 국립 박물관을 방문하였습니다.
 생각보다 웅장하고 아기자기한 인테리어에 놀랐고 다양한 유적에
 감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그랜드 모스크로 이동을 하였습니다.
 방문한 날은 일반인들에게 모스크 내부를 허락하지 않는다고 하여
 내부에 들어가지 못해 다소 아쉬움은 남았지만 겉모습으로도 웅장
 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



고생한 뒤에 찾아오는 꿀맛 같은 문화탐방.

비록 3일간의 짧은 여행이었지만 동기를 만나고 휴식을 취한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바레인 문화를 느끼고 조금 더
 친밀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인턴생활을 되돌아보면 참 많은
 일들이 있었고 때론 힘든 일도 있었지만 웃고 행복한 날 들이
 더 많았습니다. 문화탐방은 3개월간의 사우디아라비아 생활 중에
 값진 추억이고 잊지 못할 기억이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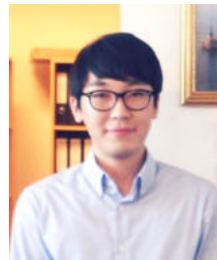
4th Global Intern Saudi Arabia





UNITED ARAB EMIRATES

Hyundai Heavy Industries
UAE Abu Dhabi



김남진

혹로 아부다비에 뚝 떨어졌지만
외로움? 그게 뭔가요? 다양한 경험을
통해 쌓은 노련한 실력을 바탕으로
씩씩하게 맡은 업무를 해내는 우리의
든든한 청년 김남진!

about

Hyundai Heavy Industries UAE Abu Dhabi



현대중공업의 현 위치를 보여준다, 우수업체를 이겨낸 플랜트공사.

현대중공업 아부다비 사무소는 2009년 ADGAS 가스 플랜트 공사 프로젝트를 위해 세워진 사업장입니다. 2009년 7월에 착공한 이번 프로젝트는 2013년 12월을 기점으로 모두 마무리 되었고, 대규모 작업설비와 공사가 끝난 지난 9월 이후 최소한의 인원만이 남아 관리 및 현장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프로젝트의 핵심은 UAE의 수도 아부다비에서 북서쪽 약 170km 떨어진 다스섬 (DAS ISLAND) 앞 해상을 매립하고 그 위에 모듈 24기로 구성된 가스 처리 설비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아부다비 사무소는 공사를 진행중인 현장에 필요한 계약 및 물류, 원가 등의 필수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파견된 약 50여명의 현장 인력과 150여명 정도의 외국인 인력이 일하고 있습니다. 중심이 되는 현장 설비는 UAE 움 사이프 해상 가스전에서 생산된 가스를 육상의 합산 플랜트로 보내는 역할을 하게되며, 완공 후 1일 10억 세제곱피트의 가스를 처리할 수 있는 규모로 건설된다고 합니다.

개인연락 금지! 비밀리에 진행되는 다스섬 플랜트 프로젝트.

세계 우수 업체들과의 치열한 경쟁 끝에 공사를 수주했다는 자부심과, 해양 플랜트 분야의 높은 기술력 등 현대중공업의 현 위치를 보여주는 프로젝트를 모두 수행하는 곳이 아부다비 사무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사 내용과 진행사항은 철저한 보안으로 진행중이며, 현장으로 진입시 카메라, 핸드폰, 노트북 등의 개인 전자기기 사용이 불가할 정도로 비밀리에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핵심 인력과 긴 시간 투자를 지속한 현장이기에, 인턴으로서 책임감과 부담감이 뒤따랐습니다. 저는 조직생활에서의 적응과 함께, 짧은 기간이지만 구성원으로 참여 할 수 있음에 감사함을 느꼈고 성실히 업무에 임하였습니다.

인턴수기

■ 김남진

처음에는 무거운 짐, 결국엔 값진 보상.

무섭게 달려드는 고온의 날씨와 '아부다비 외톨이'라는 외로움으로 초기 아부다비 적응과정은 그리 순탄치 못했습니다. 잘 갖추어진 조직의 위계질서 틀에 끼어들어, 게다가 저 홀로 모든 것을 알아서 잘 해내야 한다는 중압감으로 무서웠습니다. 혼자였기에 처음에는 짙어진 책임감이 마냥 무겁게만 느껴졌지만, 혼자였기에 느낄 수 있는 성취감 또한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여러 선배님들의 지휘 아래 나름의 규칙과 방향을 가지고 일을 배우다 보니 일에서 오는 보람과 뿌듯함이 무엇인지 비로소 깨닫게 되었고, 조직에서 나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가를 점차 알아갈 수 있었습니다.

아산의 정신으로.

처음 도착하여 짐을 풀기도 전에 신입사원 한 분과 글로벌 스텝 두 사람의 빈 자리를 제가 채워야 한다는 소식을 부장님들께 전해 들었을 때 참 막막했었습니다. 과연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과연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주어질까? 그런데 답은 의외로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인턴 파견 전 집합 교육 등에서 배웠던 '정주영 정신'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시도해보지도 않고 지레 겁만 먹었는데 직접 부딪히고 나니 "나도 아산 정주영 선생님처럼 할 수 있다." 라는 강인한 마음가짐을 다지게 되었습니다.





4th Global Intern
UAE

PHOTO ESSAY





UNITED ARAB EMIRATES

Hyundai Oilbank
UAE Dubai



신진욱

무뚝뚝한 첫인상과 다르게 평소
유머라 매너를 다 갖춘 현대오일
뱅크 두바이지사의 막내!
But 식복이 넘치는 바람에 배가
많이 나왔다는...

about

Hyundai Oilbank UAE Dubai



현대오일뱅크의 두바이지사는...

DMCC(Dubai Multi Commodities Center)자유무역지대 내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경제성이 우수한 중동 원유의 안정적 도입과 해외 수출시장 확대를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세계 정유 회사들이 앞다퉈 고도화 설비에 투자하면서 고유황 중(重)질 원유의 수요는 점차 증대되고 있어, 중동 산(産) 고유황 원유 확보 전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중동 원유 의존도는 약 80% 이상이며, 현대 오일뱅크는 9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중동 산유국과의 긴밀한 관계 유지.

두바이지사의 핵심업무는 중동 산유국 거래처를 밀착 관리하면서 긴밀히 협력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좋은 품질의 중질원유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최근 시리아 사태와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상함에 따라, 안정적인 원유 확보는 더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석유제품 트레이딩 확대 및 새로운 판로 개척.

또 하나의 주요업무는 석유제품 트레이딩 기획의 확대입니다. 현대오일뱅크는 인근 아시아 국가들을 상대로 수출을 활발히 하였는데, 주요 소비자인 중국의 자체 정제능력이 높아지고 일본의 수요가 둔화되면서 새로운 시장을 찾아야 합니다. 이에 석유제품의 수요와 공급이 증가하는 지역(중동, 아프리카)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으려 합니다. 특히 아프리카의 시장을 집중 개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의 업무를 아프리카의 석유제품시장 개발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 관련 산업분야에서 신규 사업개발의 기회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턴수기

■ 신진욱

MY WORK, MY DUTY!

저는 에너지 관련 사건들을 조사·분석·정리 보고하는 일, 주변 원유 생산국과 각 석유 회사의 주요인사 파악 및 업데이트하는 작업, 그리고 거래처와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돕는 일을 담당하였습니다. 또한 새롭게 알게 되거나 거래를 앞둔 석유회사의 정보를 찾아 요약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그 외 중동지사의 예산안 정리, 지사와 주변국의 석유기업을 순방한 본부장님과 원유 팀장님의 비행일정을 계획하기도 했습니다.

매순간이 ‘인생의 첫 순간’이라 여기며...

글로벌인턴을 회상하면 매년 ‘인생에서의 첫 순간’이라는 의미를 부여하며 지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턴으로 합격하고 나서도 스스로가 더 배울 것이 많기 때문에 선발된 것으로 여기고 인턴 생활을 하며 자기발전을 이루려 노력했고 혹시나 직원 분들에게 폐가 되지는 않았나 생각을 했습니다. 업무도 열심히 했지만 타지에서 다른 문화와 소통하는 것, 외국에서의 한인 커뮤니티에 적응하는 것에도 의의를 두었습니다. 예전에 교환학생으로 이슬람문화권에서 생활했던 경험과 여행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적응은 문제없었지만 학생신분이 아닌 인턴 신분으로 생활한다는 것은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가족, 두바이의 임직원분들.

두바이에 출장을 오신 글로벌사업 본부장님과 원유 팀장님을 뵈 수 있어서 값진 조언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업무 외에도 타 기업에서 일하는 분들과 교류하며 대학교에서는 절대 배울 수 없는 것들을 알게 되어 너무 좋았습니다. 사무실에는 저를 포함해 4명이 근무하여 가족 같은 끈끈한 분위기가 형성되어 더욱 즐겁게 일할 수 있었습니다. 원유 획득의 최전선이 현지에서 직접 보고 배울 수 있다는 것이 큰 자산이 되었습니다. 경험이 부족한 제게 지사장님께서 여러 업무를 해보게끔 배려해주셨습니다.

저, 신진욱의 멋진 날개짓을 지켜봐주세요.

두바이에서 머문 게스트하우스는 사장님 내외분도 너무 친절하셨고 다른 다양한 기업에서 오신 분들도 많아 곳에서 일하는 분들의 경험담과 조언을 들으며 인턴 이후의 커리어에 대해서도 진지한 고민을 해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인복이라 생각하고 늘 감사히 여기며 하루 하루 충실했습니다. 두바이지사에서 뵈었던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가끔, 일이 잘 안 풀린다고 원인을 바깥에서 찾는 것은 변명이라는 사실도 몸소 깨달았습니다. 너무나 값진 경험인 만큼 작은 바램이 있습니다. 다음의 글로벌 인턴 후배들에게는 파견지와 업무에 대해서 사전에 많이 알려주셔서 더욱 많이 공부하고 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무사하게 많은 진귀한 경험을 하고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두에게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쭉 저 신진욱을 지켜봐주십시오.





4th Global Intern
UAE

PHOTO ESSAY



4th Global Intern

나에게

글로벌인턴이란?

중 국

북경법인

- 윤진영 — “레고 설명서” 이다.
홀어져 있던 나의 미래를 쉽게 쌓아 올릴 수 있는 이정표를 제시해 주었기 때문이다.
- 이수일 — “스모그” 이다.
스모그가 발생하면 맑은 날이 그리워지는 것처럼 인턴기간동안 하루하루가 힘들때도 있었지만 훗날 이 날들이 엄청 그리워 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 정민우 — “타임머신” 이다.
15년 전의 나를 만나게 해줬다.
- 정종문 — “한편의 멋진 광고” 이다.
광고가 만들어져 소비자에게 큰 이목을 끄는 것처럼 인턴으로 시작하여 인재로 재탄생되는 과정이 유사한 것 같습니다.
- 한인우 — “손톱” 이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경험과 생각이) 자라나 있습니다.

상해금융리스

- 배정화 — “티저 광고” 이다.
나에 대해서 더 알고 싶도록 만들어주었으니까.
- 이일유 — “세계도 넓고 우리나라도 넓다” 이다.
넓은 곳에서 많은 이들과 일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과 동시에 다양한 곳에서 모인 대학생 친구들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상해지주회사

- 박노근 — “마법구슬” 이다.
나의 미래를 바라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 왕기용 — “소중한 경험” 이다.
새로운 친구를 알게 되었으니까.

연대법인

- 김선영 — “사탕” 이다.
취업 스트레스 받던 나에게 사탕같이 달콤한 존재였다.
- 김윤아 — “터닝 포인트” 이다.
가우뚱거리던 내 꿈의 방향을 똑바로 세워주었다.

상해법인

- 구성희 — “한 잔의 물” 이다.
목 마를 때 갈증을 없애주는 소중한 물 한 잔처럼 평범한 일상에 굶주린 나에게 새로운 설렘과 배움을 주었으니까.
- 이부희 — “여행” 이다.
새로운 환경과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성장한 나 자신과 마주할 수 있었으니까.

인 도

푸네법인

- 박옥현 — “내 인생의 휘발유” 이다.
지쳐가던 내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기 때문이다.
- 심은혜 — “네일클로버” 이다.
업무 지식과 문화적 다양성에 대해 배우고 좋은 인연을 만나는 행운을 가져다 줬기 때문이다.
- 이순호 — “끊임없는 MOTIVATION” 이다.
힘들 때마다 그 때의 기억을 떠올리면 항상 힘이 나고 다시 일어나서 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 정동규 — “퀴즈탐험 신비의 세계” 이다.
인도 라는 낯선 나라의 베일을 벗기듯 매 순간 순간 신비한 경험이자 도전이었다.
- 지아라 — “두레박” 이다.
우물 안에만 있던 나를 더 넓은 세상으로 꺼내주었으니까.

브라질	
상파울로	김나예 - “STAR” 이다. 내 인생의 반짝반짝 빛난 순간들을 준 소중한 기회였다. 성운모 - “안경” 이다. 더 먼 곳을 볼 수 있게 해줬기 때문이다. 정진아 - “ISSUE” 이다. 우물 안 개구리를 세상으로 꺼내주었으니까. 정희경 - “거울” 이다. 또 다른 나를 볼 수 있었으니까. 조영우 - “천사” 이다. 새로운 경험과 소중한 인연들을 만나게 해주었으니까.
벨기에	
벨지움법인	이충원 - “일탈” 이다. 반복적 일상에서 벗어나 한껏 자유를 느끼며,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러시아	
연해주농장	고민희 - “등대” 이다. 알 수 없는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었으니까. 안현주 - “무지개” 이다. 비가 온 뒤에 볼 수 있는 무지개는 일곱 가지 색의 다양한 매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베트남	
하노이	이은지 - “베트남 쌀국수” 이다. 한 사발에 맛의 신세계가 열렸고, 3 개월 그 이후로는 내 세계가 넓어졌다.
비나신	김민진 - “나침반” 이다. 새로운 도전에 앞서 내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할 지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박보경 - “좋은 향기” 이다. 평범한 나에게 값진 경험과 소중한 인연으로 좋은 향기를 불어 넣어줬기 때문이다. 이정길 - “소중한 시간” 이다. 꿈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었으니까. 최선락 - “별에서 온 그대” 이다. 극로별인턴이 아니었으면 상상도 못했을 실제로 경험하고 느끼게 해 주었기 때문이다. 하경현 - “태양” 이다. 태양이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해 주듯 극로별인턴은 내가 더 열심히 살아갈 에너지를 만들어주었다.

싱가폴	
싱가폴법인	김수정 - “엄마사자” 이다. 새로운 세상이라는 벼랑에 나를 떨켜워서 성장하게 해주었기 때문이다.
사우디	
TIHAMA	권순성 - “영화 매트릭스의 빨간약” 이다. 현재에 안주했던 나에게 신세계를 열어주었으니까. 김두민 - “동물원” 이다. 어린 시절, 수많은 동물을 구경하고 직접 만지며 체험하듯 내게 너무 많은 소중한 기억들을 남겨주었다.
JEDDAH	권표중 - “사육국” 이다. 건강식이 되어 나의 성장에 원동력이 되었고, 우려낼수록 깊은 추억이 된다. 김진태 - “도약의 소중한 시간” 이다. 직접 부딪히며, 꿈을 향해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으니까. 여찬용 - “새로운 마음가짐” 이다. 타지에서 외롭게 지내지만 가족을 위해 힘내서 일하는 아버지들을 통해 내 아버지를 이해하고 책임감을 배울 수 있었다. 윤홍찬 - “사막에서 마셨던 펩시콜라” 이다. 무더운 땀병에서 시원한 콜라 한 잔을 마시면 더위도 가시고 톡톡 쏘는 달콤한 맛도 느낄 수 있으니까.
HAL	김승근 - “고마운 친구” 이다. 현장 경험을 통해 나의 가능성, 그리고 미래에 대해 고민을 하게 해주었다. 심종섭 - “애증의 관계” 이다. 척박한 환경에서의 힘든 경험이었지만 동시에 너무나도 그리운 추억이기 때문이다. 황재운 - “드림하이” 이다. 멀게만 느껴졌던 꿈을 손에 쥐게 해주었고, 더 높은 꿈을 꾸게 해주었다.
UAE	
아부다비	김남진 - “등산” 이다. 산을 타는 과정은 숨도 차고 힘들지만 정상에 오르면 큰 성취감과 보람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나에게 잊지 못할 뿌듯함과 자신감을 주었다.
두바이	신진욱 - “학창시절” 이다. 친구들, 인생의 선생님들과 함께 평생 잊지 못할 시간을 보냈다.

‘마무리 매듭’을 함께 여며준 고마운 인턴들

심종섭 인턴

영상편집을 통해 추억에 잠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박옥현 인턴

의미있는 일이라면 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고, 근로별인턴과 귀국보고회가 저에게 그러했습니다.

정희경 인턴

우리 모두의 '90일간 대장정'을 되돌아 볼 수 있는 보람찬 시간이었습니다.

김수정 인턴

좋은 분들과 다시 한 번 더 함께 할 수 있어서 더욱 더 값진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김승근 인턴

무언가를 마무리 짓는다는 것은 아늑답고, 의미있고, 행복한 일입니다.

이수일 인턴

귀국 후에 혁미해지던 근로별인턴의 추억을 다시 한 번 떠올리게 한 좋은 기획였던 것 같습니다.

안재선 인턴 (아산나눔재단 글로벌리더팀)

흥분하게 활동을 마친 인턴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랑스러웠고, 값진 결과물을 책으로 편찬하는 작업을 함께 하게 되어 행복했습니다.

